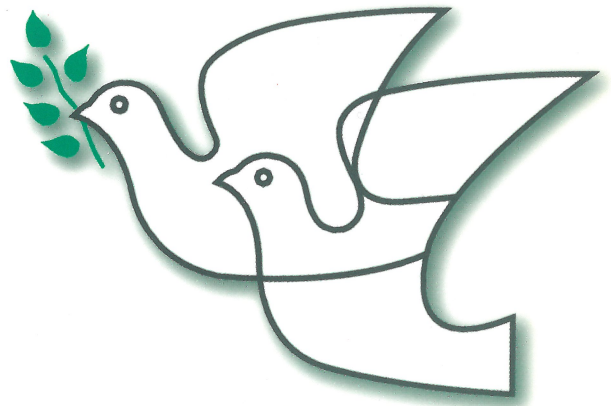


ASEM 2000 민간포럼(평화분과, 여성분과)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 기념 국제 심포지엄

여성과 평화

Gender and Peace



일시 • 2000년 10월 19일 2시-4시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대공연장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ASEM 2000 민간포럼(평화분과, 여성분과)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 기념 국제심포지엄

여성과 평화 (Gender and Peace)

* 이 심포지엄은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심포지엄은 아셈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평화분과와 함께 했습니다.

심포지엄 순서

사회: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주제발표 :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

- 인간안보와 평화형성을 위한 지도력

로사리오 파딜라(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부대표)

토론 :

I. 평화교육과 여성

카트리오나 루안(민중의 축제-벨페스트 의장, 북아일랜드)

II. 통일과 여성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III. 동북아 평화건설을 위한 일본여성의 관점-미군기지와 여성안보

에이코 아사토 (군사주의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행동, 일본)

IV.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연대

코라존 파브로스 (비핵필리핀동맹 사무총장, 필리핀)

V.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국여성의 제언

조 샤오궈아 (전중국부녀동맹 국제연락부 부대표, 중국)

진제토론

자료집 목차

주제발표문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 9

- 인간안보와 평화형성을 위한 지도력

로사리오 파딜라(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부대표)

토론편

I. 아일랜드에서 여성과 갈등..... 19

카트리오나 루안(민중의 축제-벨게스트 의장, 북아일랜드)

II. 오키나와 미군정하에서 본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37

에이코 아사토(군사주의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행동, 일본)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55

정현택(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IV.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69

코라온 파브로스(비핵필리핀동맹 사무총장, 필리핀)

V. 평화 유지에 있어 여성의 역할..... 91

조 샤오류아(전중국부녀동맹 국제연락부 부대표, 중국)

Gender and Peace

Moderator: Hyun-Sook Lee(Korea, Women Making Peace)

● Key Speech

Feminist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Towards the 21st Century
- Human Security and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Rosario Padilla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 Discussions:

I. Gender And Conflict In Ireland

Catrina Ruane (Northern Ireland, People's Festival from Belfast)

II. The Human Right of Children and Women unde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Raped Lives

Eiko Asato (Japan, Okinawa Women's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III. Reunification and Women

Chung Hyun-Back(Korea, Women Making Peace)

IV. Women's Solidarity for Peace

Corazon V Fabros (Philippines,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V. Women's Role in Maintaining Peace

Zou Xiaojiao (China, All China Women's Federation)

<주제발표문>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

- 인간안보와 평화형성을 위한 지도력

로사리오 피달라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부대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준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엄청난 기술진보 전자상거래, 실시간 의사소통에 도취돼 있다. 현대식 무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이 홍수처럼 시장에 넘쳐나고 유전자 복제까지 이뤄지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갈등과 전쟁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때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여성운동의 전망과 역할을 다루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반드시 해야 할 임무이다. 왜냐하면 여성이란 존재는 항상 전쟁과 그 이상의 역사의 중대한 순간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한 여성운동가이자 시인은

"우리들 가정
거리
나라에
위협이 사라진 순간이란 없다.

왜냐하면 전쟁의 잔인함은
머리가 아니라
빈 식탁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했다.

여성은 평화로운 때나 전쟁 때나 늘 전쟁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여성은 가난과 폭력의 목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폭력의 목표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여성과 폭력문제에 생존자들이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로 얼마

나 고통받았는가를 스스로 폭로하자 폭탄처럼 우리를 앞에서 터졌다.

세계화 시대에 가난한 대다수의 여성은 전쟁과 분쟁에서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낮은 임금으로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해야하는 이주 여성들의 증가, 이윤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평상화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여성들, 점점 늘어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여성과 아동들 압박하는 전쟁의 고통, 그리고 그들을

베고픔으로 내모는 가난과 기초 서비스의 결핍은 바로 세계화 시대, 여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뉴욕에서 열린 '북경 45'에서는 세계화가 북경 여성대회의 목표 실현과 약속 이행을 방해하는 새로운 장애물임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세계화와 구조적 프로그램의 충격, 높은 체무비용, 몇몇 선진국가에서의 국제무역의 감소 등이 여성들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발전을 막는 장애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은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평화의 안티테제다. 전쟁이 평화를 깨는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인류를 해치는 가장 극적이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폭력이기 때문이다. 소위 평화시거라고 불리는 요즘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와 중동 유럽 등지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90% 가쪽을 숫치가 민간인이며 이중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실은 한 세기 전 사상자의 90%가 군인이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유엔자료). 늘어나는 무장분쟁과 폭력은 강제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를 가져왔다. 강제이주민의 75%가 여성과 아동이다(유엔자료). 특히 여성은 더 많은 악영향을 받는다. 강간, 성노예화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때때론과 살인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힘과 역할 위여 존립하는 군국주의와 여성차별주의는 특히 전쟁시기에 사회 안의 힘없고 역할당하는 이들을 공격한다. 여성의 진정한 평화는 무장분쟁의 해결을 전제로 하며 거부장제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안전은 다음 아닌 '여성문제'이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동안에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 복리 함상을 위한 전례 없는 전지구적 관심과 조직화가 이뤄졌다. 평화는 그 기간동안 모든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 이전 10년간의 베트남 전쟁은 평화운동에서 적극적인 여성주의를 부활시키는 촉매가 됐다면 '유엔의 여성 10년'(the UN Decade for Women)은 평화운동을 깊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은 '

평화'의 관점에서 가난, 여성차별주의, 인종혐오주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 군국주의의 사회 경제 정치적 쇠퇴와 생태적 해악, 핵무기경쟁, 냉전 등의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다음 10년 동안에도 여성들은 같은 정점을 가지고 전진을 계속했다. 1995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평등, 발전, 평화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여성이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발전과 진정한 평화는 없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여성들이 변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다른 여성들의 정의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와 건강 교육 고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쟁 없는 세상은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무엇이 평화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가를 두고 여성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태를 깨뜨리는 보다 정치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부장적 기초 위에서 평화문제를 순전히 남남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찾으려는 이들도 있다. 일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전을 다루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평화를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기도 한다. 평화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일부는 평화를 얻기 위해 무장투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전통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평화의 진전을 이루려 한다. 또 평화를 현상유지로 보고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려면, 여성들은 갈등을 야기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권력과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 계급간의 관계와 가부장적 관계 등은 진정한 평화의 추구와 인류의 안전 확보라는 방정식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기에, 이러한 노력은 인류 특히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증대시키는 모든 경제적 부당과 세계화라는 악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여성들은 정의와 최후의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대중운동, 법제화를 위한 투쟁, 대중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과 정보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평화적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여성에게 평화는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여성을 합부로 해도 되는 소유물 또는 하등한 무엇으로 존치 시키려는 구조를 제거해야 가능하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무정의와 정치적 억압을 없애는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성에게 진정한 평화는 세

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압박과 억압 없이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화란 노는 아이들의 환호이고, 잠깐 재잘대며 떠드는 것이며 발뺌춤을 때 돌리는 천둥 같은 발소리이며, 노래하는 아버지의 무드러운 목소리이다.

* 코사리오 페달라

현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 연맹 부의장

현 책촌시 기간 Women Connect 편집장

1994-1995 GABRIELA(필리핀 여성단체 연합) 필리핀 해외 여성 위원회 위원장

1989-1990 필리핀 국제 여성 및 보건 회의 조직위원회 위원

필리핀 대학 저널리즘 전공, 동 대학 아시아센터 아시아 연구로 석사

<Keynote Speech>

Feminist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Towards the 21st Century
- Human Security and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Rosario Padilla (International Vice President, WILPF)

Good Morning sisters and friends,

Thank you for inviting me in this very important seminar. Today when the world is intoxicated with great technological advancement, e-commerce, virtual communication, even genes can be cloned now, modern weapons and flooding of our markets of all kinds of goods, and when despite economic globalizatio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has widened and conflicts and wars continue to rage in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to talk about peace and security and women's perspective and role in peace building is urgent and a must. For being a woman has always meant living at a time of war and more so at this juncture of our history.

As a feminist poet in the Philippines wrote:

No moment is without danger in one's own home

In the streets

In my country

For the cruelty of war
Lies not on the heads that roll,
But on empty tables.

Women on the basis of gender, live their lives be it wartime or peacetime, in a seemingly endless state of war. During World War II, women have not only been witnesses of the poverty and violence they have become the targets as well.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them by military personnel during World War II exploded like bombshell in front of us when the survivors themselves revealed how they were made to suffer as sex slaves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Never have we imagined such massive trafficking of women to satiate and comfort men at war.

In this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women is faced with even greater challenges as the poor majority of women are faced with modern day form of slavery, commodification and violence in private sphere and in war and conflict situations.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doing dirty and dangerous jobs with very cheap pay, the swelling number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men and the flexibilization of their labor in the name of profit, the widesprea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ir homes and places of work, the scourge of war bearing on women and children, and worsening poverty which leaves them more hungry and wanting of basic services, are but living proofs of how women fare in this period of economic globalization. Even the Beijing plus 5 held in New York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recognized that "globalization has presented new challeng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and the realization of the goals of the Beijing Conference. Of Women" The review said that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programmes, the high cost of external debt servicing and the declining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have worsened the existing obstacles to development, aggravat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us, despite numerous achievements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women's lives continue to be threatened at a much wider scale and in more intense forms.

When we talk of peace, war its antithesis, immediately comes to mind.

This is because while war is only one of the many causes of the lack of peace, it is the most dramatic, organized and systematic form of violence against people. And it is ironic that in this so-called peacetime, armed conflicts in various parts of Asia, Africa, Latin America, Middle East and Europe continue to rage on. It is estimated that close to 90 per cent war casualties are civilians, the majority of whom are women and children compared to a century ago when 90 per cent of those who lost their lives were military personnel (UN document). The growing number of armed conflicts and the violations associated with them have resulted as well in an increased in forced internal displacement and refugee flows. More than 75 per cent of displaced people are women and children (UN document).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affected because of their status and their sex. The abuses that they suffer take various forms such as rape, sexual slavery, forced prostitution and murder. Militarism and sexism are both built on power and oppression. Both strike against the powerless and oppressed in society, especially in a war setting.

Genuine peace for women, aside from being premised on the resolution of the armed conflic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y of women's sufferings under patriarchal society and its inclusion in the overall agenda for peace.

Peace and security, therefore, is very much a woman's issue. The UN International Women's Decade from 1975 to 1985 witnessed the unprecedented global organizing around issues concerning women'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well-being. Peace of course was central to the Decade's activities. The Vietnam War of the previous decades had acted as the catalyst for the renewal of active feminism in the peace movement, and the global nature of the UN Decade for Women added breadth to that new intensity. Feminists committed to peace began to elucidate many sorts of sophisticated connections, linking poverty, sexism, race-hatr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ecological damage and a myriad of other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lls with militarism, the nuclear arms race, and Cold War intrusions into the affairs of developing

nations. The same issues remain to be advanced by women in the next Women' s decade. The Beijing Conference of Women in 1995 came out with a Platform for action which linked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Without changing the situation of women, there can never be real development which provides improved way of life and equity there can never be genuine peace.

As women from various cultures and background increasingly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the movement for change, one woman' s definition of peace did not necessary match with another' s. In fact very often women found themselves at odds over what conditions were necessary to ensure peace. Although most women agreed that a warless world could not be achieved unless everyone on the face of the earth had basic needs fulfilled food, shelter, health care, education and employment; they disagreed on political solutions to world tensions. There are groups that only seek to address the issues of women and refrain from responding to more political issues that tend to rock the status quo. Some would tend to look at the issue of peace at a purely patriarchal basis and root the absence of peace to power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Others look at peace and security at a purely economic point, rooting this into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classes. And still other groups will look at peace as a political issue and therefore women should not participate in this endeavor as their role is not in politics. The approach to the advancement of peace has been varied as well, there are women who opted to join the armed struggle, to wage war to attain peace, while the majority choose to advance peace through non-violent but militant means. There also those who opted to work within the status quo to achieve peace.

To be able to pursue real peace, women must look at the real causes of what creates conflict. The competition for power and resources, the relation between classes and the patriarchal relations existing in society must all be part of the equation in pursuing genuine peace and ensuring human security. All these must be viewed as integral and therefore

efforts to change the situation and pursue genuine peace must address all.

In this period of globalization, such pursuit must address the evil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all other economic impositions that increases the poverty of people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omen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all arenas that will ensure the pursuit of just and lasting peace. They must develop active leadership in various areas of work, whether in the grassroots movement, parliamentary struggles or in public manifestations. Education and information is a key to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Most important, women should define what living peacefully means to ourselves and to our families. For women, peace means the absence of gender violence, not only during wars. This is premised on the eradication of structures that perpetuate the notion of women as property that can be abused and as the inferior other. For a lasting peace, fundamental changes that will eliminat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njustice and political repression should be achieved. For women then, genuine peace is a condition where the majority, more than half are women, can life their full humanity without oppression and repression.

Peace to women should be the shouting of children at play, the babble of tongues set free, the thunder of dancing feet and a father's voice singing.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On 28 April 1915, a unique group of women met in an International Congress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o protest against the war then raging in Europe, and to suggest ways to end it and prevent war in the future. The organizers of the Congress were prominent women in the International Suffrage Alliance who saw the connection between their struggle for equal rights and the struggle for peace. They rejected the theory that war was inevitable and defied all obstacles to their plan to meet together in wartime. They assembled more than 1,000 women from belligerent and neutral countries to work out principles on the basis of which they believed the war could be stopped and a permanent peace constructed. The Congres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Committee of Women for Permanent Peace which four years later became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rks for:

- * political solutions to international conflicts
- * disarmament
- * the promotion of women to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all society's activities
- * economic and social justice within and among states
- * the elimination of racism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 * the respec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environment
- * The League functions on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It seeks to educate, inform and mobilize women for action to achieve its goals. It organizes meetings, seminars, conferences to study issues and seek solutions to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It organizes campaigns to promote disarmament measures, to halt adventurism and interventions. It sends missions to countries in conflict and reports to its members and friends and to the United Nations on their efforts to bring about peaceful settlements. WILPF offers two one-year internships to young women to learn about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s of disarmament,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토론문>

아일랜드에서 여성과 갈등

카트리오나 루안(민중축제-벨페스트, 역장)

판레스타인 출신 평화 협력자 한난 아쉬라위 (Hanan Ashrawi)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우리 아이들 세대의 세계는 놀이공원과 같은 즐거운 세계가 아니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라지도 못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책임도 아닌 어두운 기억으로 그늘졌으며, 아이들에게 걸맞지 않은 경험으로 피색되어버렸다.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2주전, 두 딸과 국경 근처의 검문소를 지난 때였다. 8살난 딸 에이미어 (Eimear)는 “엄마, 저 군인은 영국 사람이야 아니면 아일랜드인 이야?”라고 물었다. 나는 최대한 절제된 목소리로 “영국인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내 아이는 “왜 저 군인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돌보지는 않고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 무기를 가져가지 않는데...저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4살난 둘째 딸 아이 다이드레 (Deirdre)는 옆에서 큰딸과 나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무구한 얼굴로 “엄마, 군인들은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좋은 사람이야?”라고 물어보았다.

당신이 엄마라면, 4살난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 길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유명한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 (James Baldw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5-6세의 나이에 게리 쿠퍼 (Gary Coopers)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서상에 나만 혼자 인디언임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다.”

아마도 나의 딸 다이드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게리 쿠퍼의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신이 Indian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 딸이 그 진실을 발견할게 될 때, 내 아이는 세상의 명확한 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의 경제사

아일랜드와 브리튼은 1171년 브리튼 제도의 군인들이 발을 디딘 이후,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1171년 이후, 829년 동안 아일랜드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정도이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는 아일랜드 토착민들에게 있어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근과 대량인민, 학살, 전쟁, 굶주림, 재난 등을 겪어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영국 사람들이나 아일랜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주었다. 아일랜드 사회에서 발견되는 발전된 모습은 모두 식민지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화 등 큰 변화의 물결은 식민지 지배라는 색깔을 띠고 아일랜드에 정착되게 되었다. 따라서, 아일랜드를 자주화하고, 식민지 과정으로 비롯된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 나아가, 분쟁에 개입된 당사자들, 즉, 아일랜드 토착민과 영국 침입자, 식민인과 피식민인 모두 식민지 지배라는 핵심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들 나름의 식민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식민지 지배 경험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에 인종문제, 계급문제, 성차별문제 등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 지배를 무시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 궁극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인의 분쟁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아일랜드의 모든 모순과 폐해가 식민 지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점은, 식민지배의 경험이 아일랜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의 분쟁과 반목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석은 한가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21년에 분할되었다. 남부 아일랜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로 구성된 독립 국가이다. 합법적 국가로서의 남부 아일랜드를 논하는 것은 켈게의 연구 주제가 될 만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 반면, 북부 아일랜드는 브리튼의 직접 통치하에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Irish North South Ministerial Council과 All Ireland Bodies, 또 여섯 개의 지방 국회가 선출되는 등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분야(안보, 최후, 미디어 등)에서의 권력은 영국 정부에 있다. 아일랜드에는 아직도 영국으로부터의 직접 통치를 관장했던 옛 공무원제가 잔존해 있다. 따라서, 북 아일랜드는 매우 군사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북 아일랜드에는 15000명의 영국 군 관련 인사들이 주둔해 있으며, 수천명 이상의 군대가 주둔해 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무기의 수가 1500,000을 넘으며 이 무기들은 군대, 경찰, 경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헬싱키 워치(Helsinki Watch)에서 공식화 한 서류에서 나타나듯

이, 왕당파 준군사조직(loyalist paramilitary)등에 의해 사용되는 무기의 양도 엄청나다. 이들은 주로 영국군과 공모해 활동한다. 아일랜드 통일을 목적으로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아일랜드 공화군 (IRA: Irish Republican Army) 산하의 군비도 대량 존재한다. (현재, 아일랜드 공화군은 휴전중이다.)

북 아일랜드가 주권국가로 시작한 이후로, 아일랜드에는 항상 분쟁과 인권 유린 사태가 존재해 왔다. 1968-1994에 걸친 가장 최근의 무력분쟁이 최근의 분쟁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싸움이었다. 이 분쟁의 가담자는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민족주의파와 공화파 (통일 아일랜드 희망), 그리고 unionists와 왕당파(영국과 연합정부 희망)이다. 군사적으로 주요 행위자는 아일랜드공화군과 그에 대항하는 영국 정부와 왕당파 준군사조직이다.

영국정부는 과거 30년 이상이나 분쟁을 진행시켜 왔다. 영국 정부는 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 미디어, 무적 군대, 그리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난폭한 무력을 사용해왔다. 영국정부는 자신들을 아일랜드의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조정자, 중개자, 더 나아가 평화 유지자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영국인들은 평화 중개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분쟁가담자이며, 진정한 아일랜드에서 평화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영국의 수세기에 걸친 인권 학대를 고려할 때, 아일랜드는 절대 영국에게 평화중개인 역할을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형성 과정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협상 과정에 들어섰다.

그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도니 블레이크 전진 하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는 아주 느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평화 형성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모든 협정이 최소화되고 격하되었다. 현재로는 경찰 주둔 이슈에 관해서 주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옛 경찰 군이 해체되고 새로운 경찰 군이 조성되기를 원한다. 아일랜드 사회는 아직도 매우 군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지금의 군사적인 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형성 과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불신을 하고 있고 협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현 아일랜드 사회 내에서는 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새 경찰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지금까지 내

가 분석한 평화 협정 과정이 아일랜드의 평화 정착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나는 천성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제도가 악점이 있고 다른 대안적 제도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나는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대의 건전한 젊은이들이 과거에 남을 해치고 파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라고, 파괴했던 것을 자발적으로 재건시키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파괴하도록 강요받는 이런 상황은, 전쟁과 식민지 제도에서 비롯된 가장 큰 비극이다.

우리 아일랜드의 모든 정치가와 여성의 힘이 독립된 국가 건설에 집중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딸과 아들들은 자신들을 교육하여 우리들을 위한 새 국가를 건설하려 할 것이다. 지금, 아일랜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아일랜드에는 우리의 차이점을 초전적 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려는 공간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지했다면, 영국 정부와 준군사조직 동맹 (parliamentary allies)과 아일랜드공화군 (IRA)은 다시 전쟁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때는 전쟁의 결과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점이 많은 평화 협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딜레마에 맞서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과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기회를 우리가 버린다면, 그 또한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여성들은 분쟁의 모든 방면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분쟁 해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마다, 여성은 살해되었고, 미망인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며, 강제식에 빈번히 불려 다녔고, 또한 자신의 아이들 세대가 차별 당하고 그들의 꿈과 기회가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여성들은 또한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고도소를 방문하여 몇 년을 보내야 했으며, 다양한 정치 단체와 운동에 가입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화 운동과 아일랜드 고유언어 보존 운동에 가입해 왔다. 물론, 이런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수많은 여성의 의견과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페미니즘과 무장투쟁, 페미니즘과 배척의 문

제, 페미니즘과 여성노동자의 이중노동에 관한 논의 등이 아일랜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서, 나는 나의 주장이 아일랜드의 전체 여성의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인권 문제에 관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일하고 있는 “연중축제”의 시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연합된 아일랜드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또한 아일랜드의 안전한 비무장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아일랜드의 통일과 아일랜드의 완전한 비무장만이 아일랜드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남아일랜드 출신이며, 두 아이를 둔 엄마이다. 과거에 나는 중앙 아메리카(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일한 경험 있으며, 그 곳에서 일할 당시 필장의 혁명적 상황을 목격 되었다. 아일랜드로 돌아와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돕는 구호 단체에서 일했으며, 그 후에는 북부 아일랜드와 남부 아일랜드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여 영국 당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현재는 유럽의 가장 큰 지역 축제의 총 지휘자이며, 동시에 벨레스트 성페트릭데이 퍼레이드(Belfast St.Patrick's Day Parade) 의 회장이며, 최근 새로이 창립된 아일랜드어학교장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Irish Language School)의 총 지휘자이기도 하다. 또한 나는 아일랜드 언어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며, 내 아이들은 아일랜드 학교를 다닌다. 국제적인 이슈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권이 유린되는 곳에서는 인권 유린의 현장을 조망하고 그 이슈를 밝히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아일랜드가 매우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일랜드가 동티모르와 관계에서 보여준 역할이 자랑스럽다. 아일랜드가 보여준 용기가 미얀마와 팔레스타인과 같은 나라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더 이상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자발적으로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일랜드가 NATO와 다른 군사적 동맹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수행한 모비활동에 소름이 끼친다. 나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 아마도 나의 아이들 혹은 나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다른 나라로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는 일일 것이다.

축제문화 조직화(Festival-Cultural Organizing)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각 지역 고유의 지식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받아하는데 보이는 열

의는 제 3차에게는 경이롭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 이들이 보여주는 열의를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자아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잃고 프랑스, 영국, 혹은 독일이라는 이 문화 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문화에 관한 어떤 연설이나 공문이 발표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인 아일랜드의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 해방과 새로운 형태로 아일랜드를 식민화 하려는 식민지배에 대한 투쟁, 그리고 희망이라는 명분 아래 아일랜드를 묶으려는 태도를 거절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Feile an Phobail-West Belfa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 공동체 축제이다. 이 축제는 1988년 북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던 전쟁 중, 가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에 시작되었다. Feile an Phobail 축제는 소외되고, 학대당하고, 사회로부터 차별 받은 아일랜드의 한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제도적인 폭력에 시달릴 뻔했지만, 오히려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기에 여러 면에서 특별한 지역이다. 그 지역이 고안해 낸 지역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 공동체는 아일랜드어학교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탄생시켰다.

그 지역 공동체 축제는 축제의 성립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다. 축제의 성립을 반대하는 캠페인에는 자금 지원을 방해하고 축제에 대한 악랄한 논쟁을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권 영국국 국회 파울은 축제를 분사하고 권 영국국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축제를 비난했으며, 축제를 위한 공공 모금활동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는 몇 년 후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그 축제를 무력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제리 아담스(Gerry Adams)는 Feile an Phobail의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 축제 운영 위원회의 스포츠로 일하고 있다. 축제 창립 당시, 공공 모금이 방해받았을 때 우리는 집집마다 찾아가 모금을 했고, 많은 지역의 길 거리에 '거리 위원회' (street committee)가 세워진다. Feile an Phobail은 이제 중앙 운영 위원회와 67개의 지역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1주일 행사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연내행사가 되었다. Feile an Phobail은 Droichead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축제와, 8월마다 열리는 A Station Once Again을 운영하며 동시에 벨페스트 성 페터리의 축제머레이드를 이끄는 단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국 체제에 어떤 위협적 존재이기에 영국의 기독교 측에서 반대를 받는 것일까?

첫째, 우리는 노동자 계급으로써 영국 기독교 측의 '역술'에 대한 개념에 도전한다. 우

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일랜드인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심어주며 바로 이 자부심이 통합된 아일랜드를 불러올 것이라 믿는다.

물론, 우리 축제는 정치적인 성격의 축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김벌하지 않으며, 우리 지역내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그 리더십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축제를 통해 아일랜드의 문화와 언어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시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즉, 우리는 금요일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에 아일랜드의 도시는 아일랜드와 영국이 공유하는 도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국 깃발만이 휘날리고 있는 도시들에 아일랜드 문화를 천천히 유입시키고자 한다.

나는 아일랜드의 일부인 벨페스트에 거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한, 내 조국의 국가는 공식 행사에서 한번도 연주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국가적 상징인 성페드릭의 날 (St. Patrick's Day)는 벨페스트 각 지역의 축제 주최자들이 힘을 합쳐 큰 규모의 축하 축제를 조직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축하 행사를 가진 적이 없다. 현재, 나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벨페스트 시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서벨페스트의 주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를 창설하는데 성공했지만, 만약 우리가 아일랜드 정부가 지원한 정도만으로 버티어 왔다면, 아이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Feife an Phobail-West Belfast는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중 하나이다.

일주일전, 나는 아일랜드의 한 인권 변호사 살해당하기 내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다. 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영국 정보국이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발견된 관계로 다수의 국제 인권 단체들이 자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편지는 나를 *rac*이라고 호명하며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나를 비난했다. 왜냐하면, 내가 벨페스트 성페드릭의 날 퍼레이드 조직의 회장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북부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평등하게 대접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과거 10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가져온 세월이었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지쳐갔고, 우리 단체의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는 눈조차 돌리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다. 더욱이,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고민은 커져갔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에 나는 봉착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결정들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내가 과연 내 아이들의 인생을 위협할 결정들을 할 권한이 것일까? 그러나 나는 결정

을 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옳고 정당한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수년간의 전쟁을 거쳤고, 수년간의 고통도 겪었다. 물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아이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는 책임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할 위험을 지금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같은 장애물을 거쳐야 함을 굳게 믿는다. 나는 나의 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나와 내 남편이 경험하고 느낀 것과는 다른 것이기를 바란다. 나의 딸들이 자라났을 때는 그 세대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해 아름다운 세상을 꾸려나가길 바란다.

이제, 서두에 언급했던 Haran Ashrawi의 글귀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모성이란 너무나도 무조건적인 희생과 복종이어서 때때로 나는 모성의 모습을 볼때면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에 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 우리를 미치도록 고통받게 하는 것이다.’

최근 나는 내 큰 딸아이인 데이드로의 학교에 다녀왔다. 딸아이의 선생님과 나는 아이들과 같이 중등 음식을 만들었다. 3-4살 된 아이들과 원주공과 마늘을 으깨가며 음식을 만든 두 시간 가량의 시간은 항상 내 가슴속에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위해 손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GENDER AND CONFLICT IN IRELAND

Caitriona Ruane (Director, People's Festival-Belfast)

Hanan Ashrawi, one of Palestines negotiators wrote the following:

Our children world was never an amusement park, and they did not grow up in freedom. They were weighted down with a knowledge that should not have been theirs and an experience that did not spare their childhood. To whom should we present the reckoning and the claim for a lost childhood?

Two weeks ago I was driving across a border checkpoint with my two daughters. My 8 year old, Eimear said to me Are they English or Irish Soldiers I replied English in as neutral a voice as I could. She said why dont they go home and look after their own country. When I go visiting another country I go dressed in my own clothes and I dont bring guns. I wish they would go home. My 4 year old daughter Deirdre, who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conversation chirped in with her beautiful innocent face, Mammy are soldiers good or bad?

How do you answer a four years simple yet profoundly complex question? To tell or not to tell - that is the question

James Baldwin, a famous African American writer said :

It is a great shock at the age of five or six to find that in a world of Gary Coopers you are the Indian.

Deirdre, my daughter has yet to find out she is the Indian, which is dominated by the mentality of the Gary Coopers, but there is time enough for that. When she does she needs to be armed with truth, clarity, a belief in herself and her rights and be articulate and confident.

History of British Irish Relations

Ireland and Britain have had a troubled history since troops from our neighbouring isle landed in 1171. During those 829 years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there have not been soldiers occupying Ireland. British Colonialism has not been a happy experience for the native Irish. It has resulted in famine, mass emigration, hangings, slaughter, land wars, plantation, hunger strikes, floggings, rebellions, partition of Ireland and untold suffering for the Irish and indeed British people.

Every subsequent development in Irish Society was structured by the colonial process - urbanization, industrialisation,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 each of these huge processes was given the colonial imprimatur. In consequence decolonising Ireland or healing the wounds attendant to the colonial process will not be an easy task. Every party to the conflict - native and settler, colonizer and colonized has had its identity forged at the colonial nexus. The colonial legacy continues to structure British and Irish lives in a way that is just as profound as race, class or gender. Ignoring this political legacy does not service to the prospects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settlement of the Irish British conflict. This is not to argue that colonialism explains every contradiction and nuance in Irish society. It is to argue, however, that without an analysis of colonialism and its effects on Ireland, the analysis of most aspects of the division and conflict is both limited and flawed. The colonial legacy is complex; there are many colonial dimensions to Irish society and to Irish British relations.

Ireland was partitioned in 1921. The South of Ireland is an independent state with an elected president and parliament. This is the subject of another paper and one which time does not permit today. The North of Ireland has been ruled directly by Britain, and in recent times an Irish North South Ministerial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All Ireland Bodies, a 6 county elected Assembly. There are some changes but real power e. g security, foreign affairs and broadcasting remains with the British

Government. We still have the same old Civil Service that administered direct rule from Britain. The North of Ireland remains very militarised. There are 15,000 British Military personnel, thousands more military police. There are over 150,000 licensed weapons in private hands, military installations, police installations, and surveillance towers. There are also the weapons held by the loyalist paramilitaries and source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and Helsinki Watch have documented cases of collusion between these paramilitaries and British state forces. And there are the arms held by the Irish Republican Army, who have been fighting for a United Ireland and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Ireland. They are currently on cease fi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orthern Ireland State, there has been ongoing conflict and denial of civil rights. The last period of armed conflict from 1968 - 1994 was the longest sustained period of conflict in recent times. The main political actors are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Nationalists and Republicans (who want a United Ireland) and unionists and loyalists (who want continued union with Britain) The main military actors are the Irish Republican Army on the one hand and the British Government and loyalist Paramilitaries on the other.

The British Government has managed the conflict over the past 30 years. The government has used the legal system, the media, armed troops, and incredible levels of militarisation. They attempted to portray themselves as neutral peace keepers between the warring tribes in Ireland - which of course they are not and never have been. Indeed if, and I say if we needed peace keepers in Ireland the last state we would go to would be Britain given their litany of human rights abuses over the centuries.

Peace Process

Nationalists in Ireland - North and South and in the US - got together and pushed for a negotiated settlement to the conflict. The Major Government were dragged kicking and screaming to the talks by

international opinion. While they were in power very little happened. Under the Tony Blair Government there have been changes and the peace process is slowly trundling along though every agreement made has been whittled down and minimised. At present there are major discussions around the issue of policing - Irish people want the old police force disbanded, and a new one created. We are still living in a very militarised society and many Irish nationalists feel that their rights are still not being respected. Many people see the process as flawed and have little confidence in the outcome. Having said that the consensus within society at present, (though it is a very shaky consensus and could collapse at any time), is that we need to give peace a chance and give the new institutions a chance to work. The analysis I have given of the Peace process is not very upbeat and might suggest that I am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I am an optimist by nature and while I feel that the current framework is flawed and would have preferred other arrangements, I have a belief in the future. One of the reasons I have is because I have watched some of the finest people of this generation being forced into a situation where they had to destroy to build and that is the worst tragedy of war and colonialism. Imagine if all the energy of all our statesmen and women could go on nation building. We are at our best when we are creating. I am now watching the sons and daughters of those people, educating themselves, creating for themselves. Change is coming in Ireland and I embrace that change. There is also a space for us at present to resolve our very real differences by talking rather than military conflict. This space is a very precious space and needs to be guarded carefully. There is an onus on the British State and its par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Women have been active of every level of the conflict and it is vital that women's voices are part of the solution. Women have been killed, widowed, in jail themselves, gone from funeral to funeral, watched as generations of young people were discriminated against and their dreams

and opportunities slipped away. They have protested on the streets, they have spent years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jail, they are involved with political parties and movements, involved in cultural organising and involved in the Irish language movement.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women's voices and hundreds of different opinions. The same debates that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bout feminism and nationalism, feminism and armed struggle, feminism and exclusion, feminism and double workload of working women are all taking place in Ireland. For the record I do not claim to represent the women of Ireland. I am representing my own views, the views of people I work with o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views of the Festival that I work with. Politically I am working for a United Ireland and a total demilitarisation of my country. I believe that this is the only way there will ever be peace in my country.

In order for you to place what I have to say in a context I believe it is only fair that I give you a very brief synopsis of my own experience because we are all conditioned by our life experiences. I am from the South of Ireland, I am the mother of two young children. I worked in Central America (El Salvador and Nicaragua) and became very radicalised there. Upon returning to Ireland I worked for an Aid Agency for Latin America. I subsequently founded a Centre which worked on creating North South Links in Ireland and globally, and highlighted British State Abuses of Human Rights. I am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biggest community festival in Europe, among the biggest in the world, I am chairperson of the Belfast St. Patrick's Day Parade and a Director of the newly founded Board of Directors of Irish Language schools. I am a passionate lover of the Irish language and culture and both my children attend All Irish Schools. ON the international front I believe that where human rights are abuse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ighlight them. I believe that even though Ireland is a very small country it has the potential to play a major role in world relations. I was proud of the role my country played in relation to East Timor - I would like to see it leading the way in helping bring about change in

countries like Burma, Palestine and not be so afraid of the big powers. I am horrified at the lobby for Ireland to join NATO and other military alliances. My worst nightmare would be to see a child of mine or their friends put on a uniform and travel to another country.

Festival - Cultural Organising

The passion which native intellectuals defend the existence of their national culture may be a source of amazement; but those who condemn this exaggerated passion are strangely apt to forget that their own psyche and their own selves are conveniently sheltered behind a French or German (or British my brackets) culture which has given full proof of its existence and which is uncontested.

I say again that no speechmaking and no proclamation concerning culture will turn us from our fundamental tasks; the liberation of a national territory; a continual struggle against colonialism in its new forms; and an obstinate refusal to enter the charmed circle of mutual admiration at the summit.

Good old Franz Fanon hit the nail on the head yet again. What would we do without him.

Feile an Phobail - West Belfast is the largest community Festival in Europe. It was founded in 1988 during some of the worst times of the war in the North of Ireland. It grew out of a community that was labelled, marginalized, harassed, discriminated against and censored. IN many ways it is an exceptional community because it could have fallen under the weight of the institutionalised violence that it suffered. Instead it created some of the most progressive leadership this country has seen in this century, a community infrastructure that is second to none. It has created a network of Irish language schools and projects that is incredible.

The success of the festival has happened in spite of a concerted campaign by the establishment against it. This campaign included denying it funding, writing malicious articles about it. Pro British paramilitaries firebombed it and rang in bomb scares to the RUC, pro British politicians publicly denounced it and cloaked public funding to it and the people in West Belfast got their heads down and in a few short years it has become so big and so successful that it is impossible to ignore it. One of the founded members is Gerry Adams and he is currently an active memb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When it was denied funding we went door to door to collect money and street committees were set up in every area. The Festival now has 67 local festival committees as well as the management committee. What began as a one week event in the year has now become a year round programme. Feile runs a children's Festival - Draiocht, a radio station ; A Station Once Again, an August Festival and it is one of the lead agencies in the Belfast St. Patrick's Carnival Parade.

Why are we such a threat to the British Establishment?

- 1) We are from a working class community and we are successful - we are challenging their ideas of what is art. We are arming our next generation with self-esteem and confidence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ill help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 2) We are a political festival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political (of the people) we refuse to censor our community. We embrace the leadership within our community and work with them for change.
- 3) We are bringing Irish culture and language in its broadest and most inclusive sense into a city that is slowly changing . A city that has the British flag flying when it is clearly stated in the Good Friday Agreement that it is a shared city. A city that knows it has discriminated in the past, would like to continue in the

future, but knows it will have to be a little more subtle and strategic about how it discriminates.

I am an Irish woman living in Belfast, the island of Ireland yet my national flag is not officially recognised. My national anthem is never played at official functions. St. Patrick's Day, (the national symbol of Ireland) has never been celebrated in Belfast until festivals in this city got together and organised the biggest celebration this city has ever seen. I have currently been granted leave by the High Court to take Belfast City Council to Court on the grounds of political discrimination on this issue.

People in West Belfast have founded a Festival which is the largest Festival in Europe and only for the support given to us by the Irish Government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us to survive. Feile an Phobail - West Belfast i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innovative organisations in Ireland today. I have brought with me today a letter I received one week before a friend, colleague and Human Rights lawyer was killed (Rosemary Nelson). There is strong evidence to suggest that British Intelligence had a role in her killing and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s have called for an independent inquiry. This letter calls me a rat and urges me to go back into my hole it came on the official city council envelope. This was because I was the chairperson of the Belfast St. Patrick's Day Parade. We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we are treated equally in the North of Ireland.

The past 10 years have been incredible years, yet very difficult at times. At times, I, like you, get tired, I just want to close my door, put on the fire and protect my family and not let the outside world in. The contradictions have become greater as I have children, especially as I have daughters. Dilemmas that I never thought about before are being presented to me : Have I the right to make choices that endanger my life? Have I the right to make choices that endanger my daughters? I have made a choice but is it the right one. I look at them so innocent, so fair and so beautiful. Do I tell them about the bad things? I dont know the compromise we have come up with is that we teach them to

question and trust their own instincts but keep some truths from them yet.

NO amount of threats, no amount of harassment or intimidation will make us stop struggling for what is right and just. We have been through years of war, years of harassment. I am not saying it is easy - and as you get older and you have children it is more frightening becaus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them. Balance, juggling and protecting our children's right to a childhood become second nature to us. WE are the experts at it. Deep in my soul I know that if we do not take risks for peace then our children will have the same obstacles to face as we have.

I hope that the battles and experiences that my daughters have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nes their daddy and I have had. I hope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their creativity and enjoy this lovely world of ours.

I will end as I began with a quote by Hanan Ashrawi - I feel angry as I watch the TV and the young Palestinians being mowed down. I know we are talking about Europe and Asia here but our thoughts are also with the people suffering in the Middle East.

Motherhood is such a silliful and willing act of subjugation that it takes my breath away at times. How else could such unhampered and unconditional loving and giving exist? Our fear for them makes us brave, and their vulnerability is our cowardice. When they hurt we suffer beyond reason, and their joy is our elation

Recently I went into Deirdres play school and the teacher and I cooked an Arab meal with the children. Those two hours spent watching those 3 and 4 year old children mashing chick peas and garlic and making hummus will remain with me for ever. Our children are so non-judgemental, so creative and so open to life. Lets work towards

creating that safe space 233 to protect their right to dream and reach for the stars.

* Catriona Ruane

1983 - 1987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Worker in Nicaragua,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1987 - 1988 Worked with Trocaire, an Irish Development Organisation

1988 - 1997 Founder and co-ordinator of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human rights centre, North / South Links (N + S Ireland and N + S Global)

1997 - Present Full time Director of Feile an Phobail - West Belfast (The People's Festival- West Belfast)

Present Chairperson of Belfast St. Patricks' Carnival Committee
Director of Irish language Schools in the North of Ireland
Member of the Cultural Diversity Working Group i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오키나와 미군침하에서 본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미군 주둔은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사토 에이코(군사주의폭력에 대항하는 오키나와 여성회)

1995년 미군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자, 오키나와 여성들은 2차 대전 이후 일어났던 강간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들 모으고, 사건마다 증인을 확보하였다. 전후 강간 사건들이 세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과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여성연합회에서 발간한 “전후 미군이 저지른 오키나와 여성 대상의 범죄”라는 보고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97년 사이 일어난 강간 사건은 180 건이며, 이중 22건은 20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였다. 심지어는 9개월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군에 의한 범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 전쟁 중, 혹은 전쟁 후에 오키나와 여성들이 당한 강간 사건을 밝혀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밝혀진 사실 한가지는 오키나와 여러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집단 강간이 왕왕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에서 전쟁 후 남아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게 되자, 여성들이 미군들에게 희생된 일이 있었다. 심지어 전쟁 중 상황이 매우 긴장되어있을 무렵, 미군이 한 지역의 여성들을 집단으로 공격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 중엔 남편 앞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도 모든 여성들이 강간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4,700 건 이상의 미군 관련의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미군 측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통치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해왔음을 증명한다. 원고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키나와에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오키나와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유미코 사건

6살의 유미코가 31살의 미군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나는 7살이었다. 1955년 9월 3일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쟁이 끝난지 10년이 흐른 뒤였다. 사건 발생지는 오키나와의 가장 큰 섬의 중심부, 이시카와 시(市)였다. 유미코는 그 날 유치원에 갔었고, 영화를 보겠다고 혼자 나간 후 저녁 8시 경 행방불명이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6살 된 어린 아이가 영화를 보러나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방 한 칸 혹은 두 칸의 집에서 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질 녘까지 밖에서 놀았었다고 한다(오키나와의 여름은 저녁 8시에도 해가 지지 않아 밝다).

이시카와 시(市)는 2,000 정도 인구의 조용한 지방도시였었다. 그러나 전쟁 후 포로수용소가 세워지고 인구도 30,000명으로 늘어났다. 전후 오키나와 지방 의회도 세워졌다. 이시카와 시(市)를 임시 정치 중앙부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시카와 시(市)에는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조용했던 곳이 어느새 도시가 되어 갔다.

한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 미군은 강제로 오키나와를 압수하였다. 이 때 모든 섬을 포함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항이 거세였었다.

이 반항이 전후 큰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문서의 부족으로 나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세 명의 미군에 의한 초등학교 소녀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나는 과거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1955년 9월 4일,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뒤, 오키나와 신문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신원 미확인 소녀, 강간·피살된 채 카데나 해변 근처 미군 기지 쓰레기장에서 발견. 4일 오전 8시15분 경 순찰을 하던 미군 두 명이 8살에서 10살 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 시신이 카데나 마을 카라시 해변에 있는 미군 쓰레기장 주변에서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데나 경찰서에 보고하였다. 속옷이 왼쪽까지 풀려내려져 있었고, 이를 꼭 물었던 것으로 봐서 강간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미코의 시체는 복부 무늬가 날카로운 칼로 베어져 있는 등 심한 외상을 보였다.

가해자들은 일주일 후 체포되었다. 라이카무 정보국은 9일 오후 8시, 민간 정부 프레스 석션을 통해 첫 공식 발표를 했다. "B대대 32 포 사단 아이작 J. 하트 병장을 살인, 강간, 유아 납치 혐의로 기소한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군법정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예

비 조사가 진행 중이다.”(오키나와 타임즈, 1955년 9월 10일)

한편 오키나와 각 지역의 주민들은 분노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시위가 열렸다. 어린이 보호연합이 꾸려졌으며, 나라에서 비상 소집 회의를 열었고, 정책과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의 목표를 논의했다. 9월 16일 이시카와 주민들의 시위에는 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국책과 인종에 관계없이 이 같은 종류의 사건 가해자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 예외적인 권리를 없애야 한다. 군 부대 밖에서 일본인에게 행해진 외국인 범죄자는 군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오키나와 측의 사법 집행권을 두어야 한다. 재판 과정을 기록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해야 한다.”

미국 신문에서 사법계 인사들과 경찰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몇몇 검사들의 대답은,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군법정의 재판 과정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판결이 공정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가해자가 일단 군에서 퇴출되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외국인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형법계의 detective sergeant는 “가해자가 미국인이라면 사건은 전적으로 미군이 처리해야 한다. 민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 조사기관을 돕는 것 뿐이다. 이는 검찰국에서 지역 거주지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지역 거주지의 사건은 그곳 민간 경찰이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찰이 체포한 외국인 범죄자의 사건 결과는 발표되지 않는다.

유미코 사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4일에서 19일까지 두 주 간의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유미코 사건이 있는지 일주일 후 또 다른 9살짜리 여자 아이가 미군에 의해서 강간 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에 미군 관련 사건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었다. 9월 4일부터 19일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해 보겠다.

· 9월 6일: 기타나카구수쿠 마을, 친구 집을 나와 귀가하던 스무살 여성이 한 외국인에 의해 공격당하다. 그러나 지나가던 택시의 운전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

· 9월 5일 오후 2시 경: 이사가와 지역 하지 마을을 남북 방향으로 비행하던 미 로켓프에서 연습용 폭탄이 떨어지다. 폭탄은 흰 연기를 내뿜고 큰 폭음을 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 9월 10일: 카데나 공군 기지에서 B-29 폭격기가 미야코-지마 주변 바다로

추락하다.

· 9월 11일: "2번째 유미코 사건" 발생. 9월 10일 자정 무렵, 구시카와 마을 묘오 5에 사는 A씨(46세)와 그의 아내 T는 누군가 대문을 부수려하는 소리를 들었다. A씨가 문을 열자, 흑인 병사가 신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여자를 요구하였다. A씨는 집 안에 여자가 없다고 했으나, 병사는 막무가내였고, A씨는 몰래 장녀(11살)를 뒷문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그러자 병사는 이웃 사람을 불러내러 나갔다. 차녀(9살)를 내보내고, 장남(6살), 차남(4살)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돌아온 그가 차녀 B가 납치되었다고 알고는 이웃 사람들과 찾으러 나갔다. 20분 후 B는 복부에 피범벅이 되어서 운면서 돌아왔다.

· 세 명의 흑인 병사가 여자기숙사를 습격. 9월 12일 새벽 3시 코야 지역 코라이 마을 여자기숙사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사람들의 소리에 도주.

· 10일에서 11일 구스비카와 마을 메바라 경찰서에서 강도와 방화 등 5건의 미군 범죄가 보고되다.

· 14일 밤 11시 경 두 명의 흑인 병사가 페리 지역 나하 시(市)의 오키와 하나코씨 집에 습격, 잠자고 있던 하나코씨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던 것을 남편이 발견하다. 제지하려던 남편을 목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오른 팔을 칼로 찌르고는 도주.

· 역시 운전사인 A씨는 흑인 병사를 태우고 해변으로 가던 중 거의 차를 도난 당할 뻔 하다.

· 19일 세 명의 미군이 나하 시(市)의 Y씨 집에 신을 신은 채로 들어가 가족을 협박하고 여자를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 이 지역에는 이런 침입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 19일 한 택시 운전사가 나하 시(市)에서 태운 세 명의 외국인 병사에 의해 칼로 협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미군 통치, 주둔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었다. 그리고 주민과 어린이를 희생자로 한 사건 또한 계속되었다.

유미코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시카와 시(市)에서 또 다른 큰 재앙이 일어났다.

미야모리 초등학교에 추락한 제트기

1959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한 대의 제트기가 이시카와 시(市) 미야

모리 초등학교로 추락하였다. 대형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하였고, 121명이 부상당하였다. 열일곱 가구의 가정집과 한 동의 학교 건물, 교실 3채가 완전히 재가 되었고, 여덟 가구의 가정집과 교실 2채가 부분적으로 닳다. 목격자 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제트기 연료와 연기를 뒤집어 쓴 학생들이 몸매 돌을 끼얹으려고 수도가로 달려가며, “엄마 아빠 전쟁이에요.”라고 소리치르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달려달라고 소리치르고 있었다. 이시카와 시(市) 전체가 검은 연기로 휩싸이면서 시민들이 반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도시 전체가 불타올 것 같았다.” 불은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가 이용되어 군부와 민간 소방관에 의해서 두 시간 후에 진압되었다. 미군 당국은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겠노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사건 해결이 거의 3년 가량 끌었다. 류큐 정부와 류큐의 사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의 노력도 소용없었다. 사망자에게 4,500불, 중상자에게 23,000에서 5,900불이 보상액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은 없다. 상세한 정보를 구하려면 그곳 관청 자료실에 가서 류큐 정부나 사법부의 공식 기록에서 수집해야한다. 나는 이 사건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같은 세대로서 생존자와 목격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 미군 폭력을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회의 약력 >

1995년

- 9. 4. 오키나와에서 12살 소녀가 3명의 미군에게 강간당한 사건 발생
- 9. 11. 베이징 NGO 포럼 - 오키나와 위원회, Special Press Conference
에서 시위
- 9. 23.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어린이-주민"시위
- 10. 25. 공간 비상 중재 상담 센터 설립 (오키나와)
- 11. 17-18. 일본 수상과 외무부, 미대사관을 대상으로 25 대표단 성명 발표
- 11. 29. 제1차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운동 총회

1996년

- 2. 1. "전후 오키나와 여성에 행해진 미군 범죄" 출판
- 3. 7. 세 미군 병사가 12살 오키나와 소녀를 강간한 사건의 판결이 나
면서 "여성 인권을 존중하라" 성명서 발표
- 6. 29. 제2차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운동 총회
- 7. 2차 대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초점으로 여성 인권 회의
- 9. 1-7. "여성 폭력을 없애는 일주일" 프로그램 (콜롬비아 대학)

1997년

- 1. 10. 제3차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운동 총회
- 4. 3. 특별법(미군 기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키나와 땅 요구)
반대 여성 단체 조직
- 5. 1-4. "국제 여성 네트워크 회의"(오키나와-일본-필리핀-한국-미국) 공동
조직
- 5. 16. 일본 정부가 미군에 지불하는 막대한 지원금이 위헌이라는
소송지지 (원고집단으로 참여)
- 9. 6. 제4차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운동 총회
- 11. 헬리콥터 발착장(나고야 시)에 반대하는 1년 께미인 참여

1998년

- 4. 4. 제5차 미군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운동 총회
- 5. 15-16. 카데나 미군 기지에서 미군폭력에 반대하는 2일 침묵 시위 참여
- 5. 17. 2차 인간 떠 잇기 시위 참여

<참고자료>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범죄
(기지군대 불허운동을 하는 여성회)

에이코 아사토

오키나와에는 95년 3인의 미군에 의한 소년 강간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북귀후 최대의 반기지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성들에 의하여 전후의 강간 사건 밝혀내기가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탐문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후의 강간 사건의 일부가 부각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기지군대 불허운동을 하는 여성회>에 의한 [전후,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에의 범죄]에 의하면 그 수는 1945년에서 2000년까지 약 300건, 그 가운데 20세 미만의 소녀들도 많고 그 중에는 생후 9개월의 갓먹이까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병산의 일각이고 제2차 대전 후 미국의 군대가 저지른 범죄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의 강간 사건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대에 의한 강간은 다음과 같이 시대나 장소도 다양하다.

- * 전시 중에 일본군이나 미군에 의한 것(1945년)
- * 점령 후, 수용소 안에서.(45-46년)
- * 군 고용원으로서 기지 안에서 (46년~)
- * 지역에서 (논밭에서 작업 중, 보행 중, 집안에서) (46년~)

또한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한 후에도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는 50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은 모두가 미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피해자가 보상을 바라는 제소를 한 예는 거의 없다. 이것은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가 얼마나 오키나와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95년 개최된 <세계 여성 회의 NGO 포럼 북경95 >에는 오키나와에서 약 70명이 참가했다. NGO 포럼에서 오키나와 여성들은 <군대, 그 구조적 폭력과 여성>이라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하였는데 거기서 일곱개의 행동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쟁 중, 분쟁 중, 군대 주둔 중을 불문하고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의 여성에 대한 범죄는 모두 전쟁범죄가 된다고 정하고 UN 및 정부의 특별 인권조사를 하도록 요구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 제기는 군대가 갖는 구조적 폭력을 묻는 극히 중요한 것으로 전후 50년 이상을 경과하여 겨우 오키나와의 여성들이 발하게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95년 이후 오키나와의 여성들은 한국, 필리핀, 미국의 여성들과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여성에의 폭력의 문제, 어린이의 인권, 기지에서 파생하는 환경문제, 미국과의 <지위협정>의 문제 등을 토의해왔다.

The Human Right of Children and Women unde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Raped Lives

**The U.S. Military Occupation Continues Even After Okinawa's
Reversion to Japan**

Asato Eiko(Okinawa Women's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Following the 1995 incident in which U.S. soldiers raped an elementary school girl, women in Okinawa began to investigate incidents of rape which had occurred after WWII. First, they collected newspaper clippings and cases on which they had already acquired testimonies. Although this were not a full-scale interview survey, a picture of the post-war rape incidents began to be revealed. According to a report entitled "Post-War Crimes against Women of Okinawa by U.S. Soldiers" by the Association of Women in Action Against Military and Military Bases, the number of rape cases between 1945 and 1997 was about 180, 22 of which were committed against young women less than 20 years of age. A 9-month-old baby was even included.

However, this figure i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Many of the crimes committed by soldiers have not been disclosed. The problems of raped of women in Okinawa during and after the war remain to be revealed.

One thing that was revealed was that there frequent group rapes by soldiers in victims of beastly soldiers. It is also said that even during the war when the situation became very tense, U.S. soldiers attacked village women in groups. There were women who were raped in front of their husbands. It can be said that in Okinawa both during and after the war any could be subjected to rape.

Even after the reversion of Okinawa to Japan, more than 4,700 incidents and accidents involving the U.S. military has ignored the human rights of people of Okinawa. It was not that they did not file complaints but

rather that they were placed under a system where they were not allowed to do so.

Given the reality that U.S. military is still present in Okinawa is still under a war state.

The Yumiko Incident

I was seven years old when Yumiko, who was 6 years old at the time, was raped and murdered by a 31-year-old American soldier. It happened on September 3, 1955, ten years after the war ended. The incident occurred in Ishikawa City in the central part of the Main Island of Okinawa. Yumiko went to kindergarten that day. She went missing at about 8 p.m. after she went to see a movie alone. It's hard to understand in the present that a 6 year old girl would go to see a movie, but reading newspapers from those days one sees that people used to live in one-or two-room houses, and most children played outside until the sun set(it's still bright until 8 p.m. during the summer in Okinawa).

Ishikawa City was originally a quiet rural area with a population of about 2,000, but after the war detention camps were built and the population grew to over 30,000. The Okinawa Council, Okinawa's post-wa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in the city, making the city a temporary political center. However, there were incessant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in the area around Ishikawa City, which was rapidly urbanized.

Meanwhile, follow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the U.S. military forcibly confiscated the land, and around this period the struggle of Okinawans, involving the whole islanders, against the land confiscation emerge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is struggle was a big historical event after the

war, I know little about it, due to a lack of well-organized documentation. After the incident of rape of an elementary school girl by three American soldier, I decided that I wanted to learned more about the incidents in the past.

The Okinawa Times of September 4, 1955, the day after the Yumiko incident, reported as follows: "An unidentified girl, raped and murdered, was found in a military garbage dump near the Kadena seaside. At about 8:15 a.m. on the 4th two U.S. soldiers on patrol found the body of a girl who seemed to be 8 to 10 years old discarded the case to Kadena police box through the MP unit. There is a evidence that girl was raped, as her slip was pulled down to the left arm and her teeth were clenched."

Yumiko's body was very brutally harmed as if "having been cut up with a sharp knife from the abdominal region to the bowel."

The offenders were arrested a week after the incident "The Raikamu Intelligence Department made the first official announcement at 8 p.m. on the 9th on the murder of Yumiko through the Civilian Government Press Section as follows: "An indictment was submitted against Sergeant Isaac J. Hart of B Battalion, 32nd Artillery Division, on charges of murder, rape and kidnapping of a girl. The military authorities highly appreciate the excellent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extended by the civilian police. With regard to the courtmartial for Hart, preliminary investigations are being conducted at present" (The Okinawa Times, Sept 10, 1955)

Meanwhile, people raised angry voices in various parts of Okinawa, and a Rally for Protection of Children was held. The Association for Protection of Children was formed with this incident as a start. The association held an emergency meeting in Naha, and discussed the policy and goals of the movement to prevent anymore such incidents. The Residents' Rally held in Ishikawa City on September 16, was participated in by 1,000 people and adopted a statement calling for a fair trial, which "Punish offenders of this kind of case with the death penalty without

leniency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ethnicity. Eliminate the extraterritorial rights and put the offense of foreigners against Ryukyuan outside of the military base into a civilian court. Have an officer(s) of judicial affairs of the Okinawa side present at trials, and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shall be recorded and broadcast so that all Okinawa residents can listen to it. The United States, if it is a country proud of its historical tradition. The newspapers asked people in the judicial circle and police for comments. A certain public prosecutor stated: "There is no room for us to get involved. Even if the proceedings of the military court are made public, we have no means to know whether the ruling is carried out as it is decided. Once the offender is sent off, that's the end"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 detective sergeant at the time [section chief of criminal affairs] said: "If the offender is an American, then the case is left completely in the hands of the military. As the civilian police have no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all we can do is to cooperate with the military's investigation organ. It is like, for example, the fact that CID does not have the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s in residential districts; the civilian police do the investigation. Generally the results of treatment of cases of foreigners whom the civilian police arrested have not been informed.

I looked through newspapers of those days in order to find out more about the Yumiko incident. I was surprised when I skimmed through the papers of about two weeks from September 4 to 19. One week after the Yumiko incident, another 9-year-old girl was raped by an American soldier. In those days incidents and accidents involving American soldiers were happening almost everyday. I will just list the cases which occur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September 4 and 19.

* September 6: A foreign man attacked F (a 20-year-old woman) from Kita-Nakagusuku Villiage on the way home from her friend's house, and attempted to assault her, but she had a narrow escape as a passing taxi driver protected her.

* September 5 at about 2 p.m.: A practice bomb was dropped from a

U.S. rocket plane which was flying over a field north of Isagawa District, Haji Villiage from south to north. The bomb was emitting white smoke, and it caused a big uproar, but fortunately there was no damage to human life.

* September 10: A B-29 bomber from Kadena Air Base crashed into the ocean near Miyako-jima.

* September 11: The "second Yumiko incident" occurred. At about midnight on September 10, Mr. A(46 years old), a farmer living in Myodo 5, Gushikawa Village, and his wife T noticed the sound of someone trying to break down the front door. Mr. A opened the door and a black soldier stepped into the living room without taking off his shoes, and demanded a woman. Mr. A said there were no women in the house, but the soldier was insistent. Surprised, Mr. A let his eldest daughter (11 years old) escape from the back door. Then, he went out to get aid from a neighbor, leaving the second daughter B (9 years old), first son (six) and second son (4) sleeping in the bedroom. When he came back, he found that the second daughter B had been kidnapped. Together with the neighbors, he looked for her in the neighborhood, and 20 minutes later B came home crying, with her abdominal region covered with blood.

*There black soldiers invaded a woman's dormitory. At about 3 a.m. on September 12, three black soldiers tried to get into the women's dormitory in Koya district, Korai Village, but ran away as people began to make noise.

* From the 10th to 11th in the jurisdiction of Macbara Police Station in Gushikawa Village, five cases of incidents by American soldiers including burglaries and arson, occurred one after another.

* At about 11 p.m. on the 14th, two black soldiers entered the house of Ms. Okawa Hanako in the Perry District, Naha City. Her husband discovered the soldiers taking sleeping Hanako's clothes off and trying to rape her. When the husband tried to stopped them, they tried to strangled him, hit his face, and stabbed him on his right arm, but ran away.

* Mr. A., a taxi driver, was almost robbed of his car by two black soldiers on the road to the beach.

* On the 19th, three American soldiers entered the house of Mr. Y. in Naha City with their shoes on. They threatened the family, demanding women, but when the family cried out for help, they ran away. In the whole surrounding area, such break-ins have been frequent.

* On the 19th, a taxi driver was threatened by three foreign soldiers whom he picked up in Naha City and was asked to take to the Harbor View. They put a knife to his neck.

The rule and occupation of the U.S. military continued afterwards, and there was a constant stream of incidents, with residents and children as victims.

Another big disaster occurred in Ishikawa City, where people had not completely recovered from the shock of the Yumiko incident.

The Crash of a Jet Fighter Plane on Miyamori Elementary School

The accident occurred at 10:30 a.m. on June 30, 1959. A jet fighter plane crashed into Miyamori Elementary School in Ishikawa City in the central part of Okinawa Main Island. It was a major disaster; 17 people were killed, 121 people were injured, 17 private houses, one public hall and three classrooms were completely burned, and eight private houses and two classrooms were partially burned. Teachers who witnessed it said: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Children, covered in jet fuel and in flames, rushed to water taps to throw water over their bodies, screaming for help to teachers and shouting "Daddy, Mommy, it's a war!" More than 1,200 school children were running around the school yard, asking for help. As the black smoke covered the whole city of Ishikawa, the citizens became half-crazed, fearing that the city would be all burned down. The fire was

the black smoke covered the whole city of Ishikawa, the citizens became half-crazed, fearing that the city would be all burned down. The fire was put out two hours later.

Though the US army publicized that it would compensate for the incident completely, but the case dragged on for almost three years before settlement despite efforts made by the Ryukyu government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Ishikawa Incident set up by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Ryukyus. The compensation paid was 4,500 dollars for the killed and 23,000-5,900 for the seriously injured.

No integrated records of this incident are available. To get details of this incident, you must go to the Prefectural Archives and pick up facts from official records of the Ryukyus government and legislative assembly proceedings. As I am of the same generation as the children victimized in this incident, I feel it is my duty to conduct interviews with the survivors and other witness to get at the whole truth.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Chronology

1995

- September 4 The rape of a 12-year-old Okinawa girl by 3 US military personnel
- September 11 Beijing Conference NGO Forum-Okinawa Committee protests the rape at a special press conference
- September 21 "Okinawa Women-Children-Islanders against Military Violence" rally
- September 27 Appeal to Mass Media to protect the privacy of victim of sexual violence
- October 21 Joined 85,000 Okinawa Prefecture Citizens' Rally calling for the reduction and realignment of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 October 25 Established Rape Emergency intervention Counseling Center-Okinawa(BECCO)
- November 8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organized
- November 9-21 12-day sit-in demonstration against military violence
- November 17-18 25-member delegation to Tokyo to issue appeal to Japanese Prime Minister, Foreign Ministry and US Embassy
- November 29 1st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General Meeting

1996

- February 1 Postwar US Military Crimes against Women in Okinawa published
- February 3-17 1st Okinawa Women's America Peace Caravan (13 women, visiting San Francisco, Washington, D.C., New York and Honolulu)
- March 7 Appeal issued on th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Women" on the occasion of the handing down of the verdict in the case of the rape of the 12-year-old Okinawa girl by 3 US military personnel
- March-April 9 reports at 4 Okinawa universities on the America Peace Caravan
- June 29 2nd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General Meeting Report on 90 speaking engagements during a 6-month period
- July Meeting to Consider Women's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them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 During World War II
- July 8-12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in Brisbane, Australia and presentation of report on military violence against women
- September 1-7 "Seven Day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with Betty Reard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eace Education Department-teach-ins, workshops, sessions with high school students
- September 8 Participation in Okinawa Prefecture citizens' referendum on US military bases
- November 29 Appeal addressed to Okinawa Prefecture Governor Ota Masahide regarding opposition to military bases and the proposed off-shore helipor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November 30 "Women's-Children's-Islanders Rally & Demonstration to Oppose Military Bases & the Proposed Off-shore Heliport"
- December 21 Participation in the Okinawa Prefecture Citizen's Rally

1997

- 3rd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General
- January 10 Meeting Report on 100 speaking engagements within Japan & overseas
Publication of first issue of Yui newsletter
- February Participation of 3 members in Okinawa Prefecture Women's
7-16 US led by Okinawa Prefecture Vice-governor Tomon
Mistuko
- Organization of women's group in oppose the Special Law
(on forced requisition of Okinawa land for use of US military
bases), 25-member delegation to Tokyo to present appeal to
National Diet Members hold press conference, sit in on Diet
deliberations
- April 3
- April 14-16 Participation in sit-in demonstration against the Special Law
- April 7 Participation in Tokyo Citizens' Rally and sit in on Diet vote
on Law
- May 1-4 Co-organizing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Meeting (Okinawa-Japan-Philippines-Korea-US)
- May 16 Support for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heavy
financial subsidy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Japan as
being Unconstitutional (one group member being a plaintiff)
- May 30 Cooperating in the movement to run a one-page ad in the
New York Times calling for the withdraw of US Marines
from Okinawa
- August 5 Participation in the Citizen's rally opposing the heliport, held
at the proposed heliport site
- Two members visit-build new network with Women against
August Military Madness (Minneapolis) and Bay Area Okinawa
25-31 Network (San Francisco)
- September 6 4th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General
Meeting, report on 68 speaking engagements by members
- November Participation and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3 Military violence and Women, Tokyo (6 members attend)
- November Participation in Women's Meeting to Oppose the Heliport
(Nago City) and 1-yen campaign to support Nago City
women opposing the heliport (250,00 yen raised)
- November 24 Faxes sent to ambassadors of 24 Countries invi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ceremony commemorating the 25th
anniversary of Okinawa's reversion to Japan, to inform them
about Okinawa

- December 13 Participation in Nago City Women's Meeting against the Heliport
- December 20 Women's street Procession against the Heliport (Nago City)
- December 27 Organization of Okinawa Women's Network against the Heliport

1998

- January 9 Women's Meeting with Governor Ota Masahide and International Street Procession against the Heliport
- February 22 Update report to Bay Area Okinawa Network (San Francisco)
- February 25 Network meetings with Cynthia Erloe and Boston Peace Network College meeting on Women and Military Violence
Participation in and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N4 Forum and groups on Violence against Women
- March 1 5th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General Meeting
- April 4 Participation in Women's Tokyo Action Program (25 members)
Organizing the Women's Two Days of Silent Protest against Military Violence at Kadena Base-Gate 5, hearing the testimony of Gwyn Kink about the Greenham Common Women's Struggle
- May 8-9
- May 15-16 Participation in the 2nd Human Chain around Futema Base
- May 17 Women's Meeting with Governor Ota Masahide to consider Military Base and the Environment
- August 1

한반도 평화와 통일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1. 여성개입의 필요성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 여성운동은 놀랄 만치 성공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분석하자면, 여전히 여성주의 의식을 지닌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통일운동은 여성에게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분야이다. 일반 통일운동단체들이 지닌 뜨거운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여전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은 매우 더디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깊이 자각한 것은 독일 통일을 통해서였다. 독일 통일은 여성의 지위, 특히 동독출신 여성들의 지위를 현격하게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통일 운동은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왜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통일이 되거나 남북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남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두고 북한 남성노동력과 경쟁해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수록 군축이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 축소된 국방비를 여성복지비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은 여성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은 평화나 통일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하여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과제와 역할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그간의 통일정책에 대한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략적 이용에 대한 제어'와 현재의 평화 통일정책이 '장기지속력이 되도록 견인하기'의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이 남한 내 특정재벌의 이익만을 보호하면서, 남한 국민의 이익이나 북한의 장기적 개발전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나 앓을지를 감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대 및 농업개발 지원 등 민간·정부차원의 대규모 경제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이 북한 스스로의 경제회복과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따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추동해야 한다.

2) 남과 북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세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여성운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서는 대중국의 요구가 중요해지고, 이를 통해 다자간 외교를 통한 동북아시아 균형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일본이나 서방 강대국들이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여성운동은 여러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여론형성을 통해 강대국의 간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현재 통일운동단체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결집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되면서, 지금의 대화와 협력과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합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실리주의적 이익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한 북한이 부담스러워서 순쩍 밀쳐놓고 있는 예민한 사안들을 사회운동 단체들이 앞서서 고집어내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한 미군철수와 같은 원초적인 주장들은 그 자체로서는 명쾌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포괄적인 외제'로 접근하도록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단체들, 그 중에서도 연합체 조직에서는 다양한 산하 단체들간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활동의 수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4) 이미 앞에서 정부에게 여성주의적(feministic) 관점과 통일운동의 결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성 평등과 통일의 실현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대국민과 대정부에 향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이 장기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과 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원명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문제제기와 요구는 우선은 남북 정부를 향해서 제기되어야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한 공감대를 확보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전히 평화·통일이슈는 여성대중이나 국민대중에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슈이다. 이를 어떻게 알기 쉽게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언어를 이해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여성운동의 치밀한 고민이 요구된다.

5) 특히 정부에게 여성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적 관

결의 통일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제반 분야에 여성참여가 높아야 한다. 우선 여성들은 정부의 통일관련 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정상회담 이후의 실무회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 내에 여성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통일이나 남북교류와 연계된 여성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여성들은 정상회담이후 진행될 후속과정에서 여성의제가 제기되고, 여성에 대한 태도와 우대조치를 남북 쌍방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남북교류는, 특히 경제지원을 통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 여성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증이나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여성경제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한다.

6) 반 세기동안의 분단으로 남북사이에는 많은 이질감이 생겨났지만, 그런 이질감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여성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과 여성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서구화나 서방에서 유입된 인간해방사상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과는 의식구조나 태도에서의 크나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 후에도 독일인이 겪고 있는 내부분단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여성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남북여성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은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 동포돕기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민간교류는 자칫 남성교류나 가진 자의 교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과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들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이나 북한 물자지원을 할 경우 보조금(matching fund)을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7) 그간 여성운동은 미디어감시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의 경우, 언론체제의 반응에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정상회담을 그르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 역할을 감시하여, 언론의 부정적인 역할을 최소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언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였지만, 여성들의 역할은 남북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보도를 이끌어내는 것에 못지 않게, 이번 회담과 후속작업에 대한 언론계체들의 보도에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8) 여성운동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활동영역에서 평화통일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운동의 지원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남북관계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성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여성단체들은 회원이나 여성대중을 상대로 '평화경제수립과 통일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시행이 시급하다. 여성의 입장에서 통일운동에 못지 않게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9) 현재 여성단체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정상회담이 상당한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여성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견해를 좁혀 가는 대화와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사회 내에서 남·남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여성들에게도 여·여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정한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여성들간에 통일의 실현이나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에 대해 서로가 지닌 각기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견해를 좁히면서, 공동의 합의과정을 찾아가는 데에 우리 여성들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여성평화통일포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여성들은 여성대중을 상대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운동에 여성이 참여할 필요성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화주의적 시각이 가미될 필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통일은 실현되었으며,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은 평화·통일운동을 함께 하는 남성들에게도 통일운동과 여성적 관점의 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감수성을 높여가는 작업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여성들의 주장은 정부나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남성 동료들에게도 성경한 주장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감수성의 회복은 바로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척도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약칭, 평화여성회)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성평화운동단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후신으로서 1997년 3월 28일에 창립되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통일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하며 통일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펴나갑니다. 평화와 관용의 정신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사회전반의 평화 능력을 신장시키며 생명중심의 평화문화를 일구어 나갑니다. 무력분쟁과 갈등해결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여성지도력을 증대시켜 나갑니다. 국제여성평화조직과 연대하고 평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으로 평화조직망을 확대해 나갑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긴장과 대결, 증오와 배척의 시대가 물러가고 정의와 사랑, 평화와 희망이 앞을 뚫도록 여성들의 지혜와 평화적 감수성과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갑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이런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 1) 통일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행동
- 2) 평화능력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
- 3) 분쟁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 4) 연구활동 - 한국여성평화연구원(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병설 운영
 - 통일문제 연구활동
 - 평화문제연구
 - 홍보·출판활동 : 무크지 [여성과 평화] 발간, 소식지 등 발행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소지지

주소 (100-391) 서울시 중구 강충동 1가 38-84번지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64-8649, 2275-4860 팩스 (02)2275-4861 E-mail : wmp@chollian.net

Women's role in Peace-Building and Reunific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

Hyun-Back Chung (Representative of Women Making Peace)

1. The necessity of women's intervention

For the past 10 years, the women's movement in Korea experienced a surprising progress. However, when analyzed in terms of quantity, women who are have feministic mind are still a minority. Reunification movement, specifically, is almost a barren area. In contrast to the passion of general reunification movement groups, women are still apathetic about this matter. Women's advances in the reunification policy area is very slow. Therefore, it is difficult structurally to reflect women's voices in the process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this reality, women's movement in Korea became self-conscious of women's active participation on the matter of reunification through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resulted in the dramatic weakening of women's positions, especially those of East German women.

When applying Germany's historical experience to our reality, it cannot be denied that reunification will bring immense changes to the women's lives. This is why women must participate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In case of reunification, or of more active economical exchange,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n women competing with North Korean male labour force for employment is not small. In addition, as we step closer to reunification, disarmament will happen. Accordingly, the reduced expenses in defence can be used for women's welfare. Therefore, realizing peace building or reunification is directly related to women's lives. Such reasons justify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realizing peace and reunification.

2. The role of women's movement

There are so many things women must do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r for reunification. Some of their assignments and roles are as follow.

1)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ongoing reunification policies. Similarly, women must assume the role of 'control against political use' and 'pulling for long lasting' of present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monitor whether the measures the government takes in the process of economical exchange only protect the interest of the 'chaebol'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r against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 There is a large probability that economical cooperation in the private level will develop into large scale private and public economical cooperation such as North Korean social overhead capital expansion and suppor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So, it must be inspected and encouraged that the economical cooperation progresses into the direction that considers the economical recovery and autonomous developmental direction by North Korea.

2) If, in the process of settling peace in the peninsula led by North and South, foreign forces act as a hinderance, women's movement must correspond actively. Unless peace is settled in East Asia, peace cannot be realized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diplomacy with China is quite important to us and through this, balanced system of North East Asia by multiple diplomacy must be realized. For example, if Japan or western powers bring to a halt the friendly relationship of Korea and China, women's movement, along with other social movements, must act positively, by forming public opinion, against the interference of world powers.

3) Currently the opinions of reunification movement groups are not, and cannot be, concentrated. However, for the difficultly achieved peaceful mood of North and South to be progressed smoothly, these various

opinions must be arbitrat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voice carefully agreed opinions that will not be a burden to the present process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hat social movement groups draw out sensitive issues that North Korea set aside as burdensome because it started the improvement of North-South relationship for utilitarian gains. The orthodox claims such as the evacuation of U.S. army are explicit in themselves, but they are often difficult to apply in reality. Public opinion must be directed to start at humanitarian matters and slowly approach 'comprehensive subjects'. Therefore, women's groups, especially the unions, must mediate, among the affiliated groups, the level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ands about the summit talks.

4) It has been demanded above that the government considers feministic views and reunification movements. There is a need to actively campaign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people that sexual equality and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are two sides of a coin, in other words, to declare that reunification policies and movements must, in the long term, be combined with feministic view. Raising issues and demanding by women must at first be directed at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but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extensive sympathy among the people. The peace - reunification issue is still an abstract and difficult issue for the general population. Women's movement must seriously consider how to make understand easily that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our everyday lives.

5)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specify the demands of women to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reunification policy of feministic view,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areas concerning reunification is crucial. First, women must demand that women's participation in committees, policy advisory councils, working-level talks, divisional joint committees that are official structures for governmental exchanges according to the Basic Agreement of North and South become higher. Furthermore, it is desired that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open a department related to women and manage works of women related reunification or North-South

exchange more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Women must pressure the both governments into bringing up the women's issues and agreeing to consider women and to make preferential measures. Also, since future exchange will speed up through economical support, measures must be taken for women business persons have preferential benefit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uarantees on loan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nd in financial supports on companies that invest in the North. For this, women's movement must actively bring up the issues and fight for their realization.

6) Although many differences exist due to separation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such differences are maximized in the area of women. During this time South Korean women and women's movement show great differences in the line of thinking and behavior to North Korean women due to the westernization of everyday lives and to the introduction of human liberation ideas. There is uneasiness that we might also experience the inner separation that the Germans are suffering after reunification. For women to not fall into victimized group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t is essential that women of North and South have active exchanges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through such processes.

In this sense, women must demand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women's interchange. After the activation of the movement of Helping North Korean Compatriots , private exchanges tend to become the interchange of men or rich people. Women that do not have the economical powers of men had limited opportunities in North-South exchanges. Therefore, women must demand preferential measures for women in women's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I suggest that matching funds are granted to women's cooperative businesses with North or commodity support to North by committing North-South Exchange Cooperation Funds into fields that exchanges are not activated.

7) In the past, women's movement put in a lot of effort to media-monitoring movements, and this had some positive results. North Korea is especially sensitive to the responses of the media, and pungent report of the South media may spoil the summit. Therefore, women's movement must lead the way to monitor the media's attitude to and role in the North-South summit,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role of the media. Of course, civil movement groups, such as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will be active in monitoring media's reports. However, women must not only see to it that reports on North-South issues are correct and objective, but also see to it that feministic views are actively reflected in the reports on the summit and follow-up works.

8) After the summit, women's movement must spread the consciousn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it's area of activities, and develop actively supporting groups to peaceful reunification movements. Education and social campaign among general female population to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citizens of North and South and to unite them must be actively conducted. Also, women are relatively limited in the opportunity to approach various information on North-South relations and reunification. Measures must be taken for women to approach such inform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First of all, women's groups must urgently enforce educational courses where correct information and stand points on 'The Meaning of Establishing Peaceful System and Reunification' to their members or female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eace Education** as well as reunification movement in the women's view.

9) Currently, the spectrum of women's groups are very diverse. Whe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ummit will progress considerably, discussions to share information and to narrow differences in opinion is necessary to increase women's role in this process. In other words, as male · male talk is needed in the South for truly peaceful coexistence, women need **female · female talk**. We, women must take much pains to talk and discuss about different opinions, and narrow differences about

reunification or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special communication structure, and for that, women's forum on peaceful reunification must be activated.

In conclusion, women must, from now on, actively campaign the need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and the need for the addition of pacifistic views in the movement. At the same time, introduction of feministic views in the government's reunification policies must be strongly demanded. A society that, although reunified, discriminate against women must not be made. In this sense, women must demand that men who work together in the peace-reunification movement realize the necessity of the combination of reunification movement and feministic view and work to increase the sensibility of the entire society to the matter. Such demands might seem crude to the government or to male colleges that participate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restoration of such sensibilities is the real standards that measure how democratic a society is.

Women Making Peace(WMP) - Who are we?

Women Making Peace is a specialized movement organization formed to realize re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ke peace in Asia and the world.

* Our organization was founded on March 28 1997. We conduct research on the conditions and methods necessary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present policies toward that goal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e promote tolerance and peace of mind as general values in society, promote citizens' peace-making skills, and in general cultivate a life-centered culture of peace for the world. We carry out concrete social actions to facilitate Korean reunification and peace. We try to facilitate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settlement of conflicts and disputes and to promote women's leadership in peace-making at home and abroad. We work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peace groups, exchanging

information concerning peace and security and thus expanding international women's peace-making networks. Women making peace looks forward to a 21st century where justice and love, tolerance and cooperation, respect and care, peace and hope will flower in place of tension and confrontation, hatred and exclusion,

Women Making Peace - What do we do?

Social action for reunification and peace in Korea

- * Campaign to "share food, share love"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now suffering from a food crisis
- * Organize exchanges and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 * Organize meetings with Korean women abroad to seek ways for reunification
- * Campaign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expenses and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budgets in South and North Korea
- * Facilitate women'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concerning reunification, international affairs and defence
- * Campaign to reduce violence in the home, the society and the state
- * Campaign to designate the demilitarized zone as a ecological peace park

Educational activities to foster people's peacemaking abilities and form a culture of peace

- * Tolerance and peace education towards the formation of "new human beings" ready to build a unified Korea and a peaceful world in the 21st century
- * Training of peace-makers
- * Leadership training of women, youth and children for peace culture formation
- * Peace camp for families, youth and children
- * Training for tolerance and peace sensitivity

Solidarity activiti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 * Networking with peace-related groups at home and abroad
- * Peace support activities and pressure activities for conflict solution
- * Peace journeys to visit international conflict areas and support the work of peace groups there

Research activities - conducted by the Korea Women's Institute for Peace Studies

Reunification Issues

- * Research on alternative ways to realize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unified social order from a feminist perspective
- *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ety and women
- * Studies on the re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 * Studies on ways to replace military-centered security with people-centered security

Peace issues

- * Studies on arms production and trade, military expenses and social welfare system, militarism, women and peace, patriarchy
- * Studies on the USA military bases and the suffering they cause women
- * Studies on how to live together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in an atmosphere of tolerance and mutual respect

publication

- * <Women and Peace> * English newsletter * Research report

Women Making Peace

The Women's House of peace, 4th floor 38-84, Changchung-Dong, Jung-Ku, Seoul, 100-391, Korea

Tel : 82-2-275-4860 Fax : 82-2-275-4861 E-mail : wmp@chollian.net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코라손 파브로스 (비핵필리핀동맹 사무총장)

비핵필리핀동맹을 대표하여, 핵무기와 기지없는 필리핀으로부터의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아셈 3차 민중포럼의 준비위원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러분들께 저를 초청하셔서 세계 전역으로부터의 평화 세력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준심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했던 하나의 코리아를 이루려는 주요한 계기와 진지한 작업이 이루어진 금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땅의 민중, 이 나라에게 존경의 염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핵필리핀동맹은 필리핀 전역의 청년학생, 농민, 여성, 의료관계자, 종교인, 노동조합, 전문가, 도시빈민, 과학자와 기술자, 인권운동가, 소수민족 운동가 등을 아우르는 전국적, 부문별 단체들로 이루어진 캠페인 중심의 연대를 대표합니다. 1981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필리핀의 최초이고 유일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반대하는 일련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필리핀 헌법에 핵무기 금지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모비를 벌여왔고 1991년에는 필리핀-미군기지 간의 협정 갱신을 반대하는 전국적 캠페인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 미군 기지와 군대가 철수한 후에는 기지 청소 및 복원을 위한 민중들의 전달 단체를 조직하여 이전의 미군기지 유산의 청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영광인 동시에 제가 맡게 되는 책임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특별한 여성 평화 운동가들에게 아끼 묻거나 읽은 적이 없을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이 연설을 쓰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연대들, 사람들의 이상과 전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연대란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추상적인 호소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 역경,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제 필리핀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자결과 독립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언급할 때,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식민지 지배자(그것이

스페인이든, 일본이든, 혹은 미국이던 간에)가 무력을 통해서 우리 국토를 점유하고 민중을 복종시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통치는 우리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강간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세기의 역사나 현재만 살펴보더라도 군대와 폭력의 사용이 그 공통적인 지표였던 것입니다.

필리핀인들이 아시아 최초로 신생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했고, 유럽 식민주의의 시슬로부터 풀려난 최초였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작년 1999년은 아시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 온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미국개입의 역사는 그들의 군대가 필리핀 땅을 진주해,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통치를 끝장낸 우리 조상들의 자유와 주권을 짓밟고, 아시아에서의 시장과 군사적 요새를 얻기 위해 필리핀을 정복전쟁으로 식민통치했던 1899년 2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899년의 미국에 의한 필리핀 유혈 정령은 그당시 인구의 20%에 달하던 650,000명 이상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역사가들은 필리핀-미국 전쟁의 시기를 "아시아에서 미국의 첫번째 베트남"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군기지 없는 필리핀을 위한 계속된 투쟁

1991년에 필리핀은 미군기지 합정을 거부함으로써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존재를 끝장냈습니다. 험경거부는 우리나라의 헌신적인 핵무기 반대, 기지 반대 운동의 급히지 않는 수년간의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입니다. 1992년 11월, 우리는 필리핀에서 마지막 미군기지 관계자가 철수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수년동안 투쟁의 일선에 섰던 우리들 대부분 활동가들에게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꿈이었지만, 살아 생전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군기지 철수의 시기에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속된 투쟁으로 인해 그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되었던 제 친구들과 동지들, 강간당하고 학대받았던 여성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아를 딸을 잃었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그 분노와 슬픔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는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필리핀과 미국 정부간의 의존 정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를 세계화시키려는 여러 종류의 무역 협약은 또 다른 형태의 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과 새로운 군사 및 방위 협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문제들을 청산하려는 어떤 책임도 부정하고 있는 이 때, 반핵, 미군기지 반대 운동 또한 새로운 형태의 쟁제인을 주도하여, 정부가 다시는 미국과 군사 방위 협약의 재체결을 허락하지 않도록 가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의 필리핀-미국 방문군 협정

우리가 독립을 기념하고 있는 이 때에, 필리핀-미국 방문군 협정(RP-US Visiting Forces Agreement : VFA) 을 필리핀 의회가 통과시켜 다시금 미군이 필리핀 땅에 귀환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은 불행입니다. 이 상황은 미군기지가 필리핀에 존재했을 당시 필리핀인이 행했던 역할 - 아시아 태평양, 중동, 그밖의 세계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개입과 공격의 공범자 - 을 고스란히 돌려 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미국간에 맺어졌던 기존의 군사 협약들과 유사하게, 주둔군 협정과 그 조항은 필리핀의 영토적 통합성과 환경, 필리핀 인들의 존엄성에 대한 불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군 협정은 미국 군대를 필리핀에 다시금 주둔하게 하며, 미군과 관련 종사자들이 필리핀 국경 내에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처리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미국은 22개의 항구를 군사 접근 지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례없이 미군에게 전 국토를 내주는 일입니다.

현상가상으로 방문군 협정은 미군이 필리핀 국경에 들어오는 선박들에 핵무기가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핵무기의 국내 반입 및 이송을 허용할 뿐더러, 핵폭발의 가능성조차 잠재합니다. 결국 미국의 적들로부터의 외부적 위협에 나라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방문군 협정에 의해 미군에게 허용된 다른 "활동"들은 우리의 공격, 사적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agency : NSA)는 전국 감찰-시스템 - 예설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전자망으로써 모든 전화, 팩스, 이 메일, 모뎀신호를 감시하고 교란시키는-을 개발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술평가"(AN APPRAISAL OF TECHNOLOGIES OF POLITICAL CONTROL" 라는 제목의 1998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나라의 군사적 교류를 이용한 미국-국가 안보위원회간의 작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국

기안보위위원회 예설은 시스템은 민간인이나, 전 세계의 정부, 심지어는 미국의 우방들을 대상으로 한 오용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방문군 협정에서, 미군 군사 관계자의 정의는 비단 미국 군인과 선원뿐 아니라 "미군에 의해 고용된, 또한 미국 무장병력과 동반하고 있는 민간인 관계자"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민간인"은 미국-국가안보위원회의 기밀 전문가와 기술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은 미군 기지가 주재하던 당시 클라크, 수빅, 캠프 존 데이 등지에서 첩보 통신 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도청 네트워크중 하나인 예설은 시스템에 의해 방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이저(Nicky Hager)의 국제 첩보 네트워크를 다룬 책인 "은밀한 권력(SECRET POWER (N. Hager 1996))"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안보위원회 예설은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적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첩보활동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뿐 아니라, 헤이저에 따르면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확장적인 교란행위가 있다.... 이들 나라간의 사적인, 공적인 교류에서 논의된 화제, 그들이 취한 입장과 대한 정책 등을 밝히기 위해 아세안 회담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 안보의 방어 정책

1997년 미 국방부가 발간한 Quadrennial Defense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배치된 100,000명의 군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은 현재 "무역해로의 보호" 와 "핵심 시장과, 에너지 공급 및 전략적 리소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같은 경제적 세계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방성의 문헌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반경을 "미국 국방의 사활이 걸린 무역의 고속도로"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 아시아 국가들이 남지나 해의 스파틀리 군도를 두고 벌이고 있는 영토 다툼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의 잠재적인 인화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둔군 협정을 통해 미국에게 필리핀에 군사 재배치를 하도록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했던 것도 스파틀리 군도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영토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5월 28일자 토마스 릭스 (Thomas E. Ricks)가 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미국의 군사적 초점이 대륙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전략가들은 아시아를 잠재적 분쟁 발발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국방성이 아시아를

향후의 군사적 분쟁 내지 최소한 경쟁의 전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뚜렷한 방향전환은 많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더 많은 공격용 잠수함이 배치된 것이나, 점점 많은 수의 게임이론과 전략 연구들이 아시아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지,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재정의하는 더 많은 외교력이 동원된다는지 하는 사실들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력의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갔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 또한 함께 이동하고 있다"고 정책 보안국의 부국장인 제임스 보드너는 말합니다. 미국의 두가지 주요한 장기 군사-외교 노력은 아시아로의 새로운 관심을 보여줍니다. 첫번째는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존재를 재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베트남전 종전 이후 25년만에,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군기지가 철수한 지 거의 10년만에 남동 아시아에 미군이 재주둔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지난해 주둔군 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국과 필리핀은 두번의 주요 군사 합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간의 부활된 군사관계는 한 장성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버거킹과 물딩장으로 "리틀 아메리카"를 짓는 대신, 미군은 재난구호부터 전범위의 전투까지 미국인과 필리핀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게임과 합동 군사작전

필리핀에서 모의전쟁에 정기적으로 동원되는 미국의 군사단위는 대개 공식명칭이 "연합 합동 교류 훈련(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 JCET)"- 현지 미국의 경제 세계화 정책을 지원하며 탈냉전기 of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간شم주의 정책의 일환인- 훈련에 전세계적으로 결합하는 특수군입니다. 합동작전에서 미국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들 특수 병력은 각국에서 지형, 지도자의 배경, 각국 군대의 준비상황 평가, 가능한 작류 지점 통과 같은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당연히 그들이 주둔국에서 실제로 어떤 군사적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동안, 모의전쟁 기간 중 미군은 지역의 반-폭동세력을 훈련시키고, 첩보수집, 감시 및 탐지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의 전쟁은 민다나오의 외국 기업 플랜테이션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핀을 자본 세계화하는데 있어 긴요한 군사적 부문인 것입니다. 또

한 모의전쟁은 주둔국의 군대에게 미국 무기와 군비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 트레이닝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대한 지지의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미국의 군사 외교방어 장교들 사이의 개인적 접촉과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훈련은 펜타곤의 미국 무력의 전세계적 확대 및 간섭능력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의 될 수 없는 한 조각입니다.

유해 폐기물에 의한 오염과 그 정화의 문제

우리는 전에 미군기지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환경의 파괴가 다시 미국의 작전수행과 항공 진입으로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약 1세기간 주둔한 후에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독성 유해 폐기물로 오염된 지역이 남았습니다. 이전 군사기지에는 엄청난 오염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만약 그 오염이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전면적인 조사와 정화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군사기지에서 일어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비극적인 오염사례는 필리핀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지대의 질정기에 저지른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지가 위치했던 주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통한 이야기는 가장 약한 여성과 아이들에 의해 계속 독성이 유전되면서 지속적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화학물질의 침투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잠재력을 빼앗음으로써,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한 국가의 구성원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아무도,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라고 해도,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필리핀에 남기고 간 독성 폐기물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투쟁과 의회활동, 아시아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연대작업들은 모두 미군기지(지배와 간섭의 기제인)가 우리 국경을 영원히 침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요 단계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호받고, 여성의 신체가 존중되며, 지역사회의 삶이 지속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이 옹호되는 전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투쟁에 연대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는 마치

막 군사시선이 해체되고, 마지막 군관계자가 아시아와 태평양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기 전까지 항상 외국의 지배와 군사 주권에 반대해 온 우리의 캠페인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한국, 하와이, 판,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군 기지를 몰아내자!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의 역동적인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

전쟁이나 분쟁상황에서 최초이자 주요 희생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 비정부단체들이 개발과 경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평화를 위한 증가하는 여성운동의 헌신적인 활동이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상당정도 기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군사 지배와 젠더 억압, 착취를 유지해 온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종종 그런 억압의 대상이며 희생자였습니다. 따라서 군대와, 군사 기지, 군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여성들로부터 여성운동으로부터 제기된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투쟁과 평화형성의 역사는, 특히 전쟁과 군사화의 와중에서 전통적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기록들은 평화와 민중 안보의 대안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 안보를 위한 연대

아시아의 민중들은 진정한 안보가 보장, 보호되는 지역을 위한 길을 보여 주고, 평화를 위협하는 압박한, 장기적인 시도의 해결을 찾기 위한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와 기아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민주화, 젠더 정의, 경제 사회적 정의, 민족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존, 이 모든 것이 이런 민중안보의 실제 기반입니다.

함께 연대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 폭력 또는 폭력적 구조, 관계, 가치의 권용 속에서,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의 복잡성과 또 우리 자신의 역사와 화해해야 합니다.

*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의 군사력을 "평화의 수호자"로 행사하게 했고,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적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해 왔던, 과거의 불신과 증오를 초월해야 합니다.

* 우리 사회 안의 분쟁 상황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국가, 민족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형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한 지역사회의 안보가 다른 사회의 불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민중 대 민중의 대안 및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을 옹호하며, 민중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건설될 집단 안보의 다자체제에 기반이 될 "평화롭고, 비무장지대이며, 핵없는" 아시아의 태평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회합이 우리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평화와 안보를 향한 투쟁에 대한 우리의 사명감을 살피우리라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한 인사인 "MABUHAY!"와 "MAKIBAKA!"로 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References:

- "Towards People's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Declaration of the Okinawa International Forum on People's Security, June 2000, Okinawa, Japan
- Indigenous Affairs, No. 1 January, February, March, 2000 issu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iwgia.org
- NFPC January 25 and June, 2000 press statements on Balikpapan 2000 and Exercises Carat
- Washington Post, May 28, 2000
- Philippine Senate Committee Report 237
- Keeping the Philippines Nuclear Free (Centennial Lectures on Natural Security), Prof. Roland Simbulan
- President Clinton, A Corporate Offensive and Okinawan Bases, D. Boone Schirmer/Boston Okinawa Network, April 2000
- Inheritors of the Earth,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 2000, basecln@skyinet.net
- Prostitution and the Bases: A Continuing Saga of Exploitation (Aida F. Santos/Cecille Hoffman/Alma Bulawan)
-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PCDS)
Resource Office: 3780 Lake Road, Denman Island,
British Columbia, Canada V0R 1T0
E-mail: >pcdsres@island.net
- PCDS Information Update #50/51 April/July 1999
-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CDI)
*website - ><http://www.cdi.org/issues/Asiamil.html>
- US Military Presence and Alliances in Asia-Pacific: Muscle and Enforcer for Multilateral Imperialism, Prof. Roland Simbulan (Address before World Peace Council, Hanoi Vietnam, March 1999)
- Secret Power, Nicky Hager, 1996
-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Update and campaign materials, basecln@skyinet.net
- Budget Cuts Push USA into Overseas Market, Bryan Bender, Jane's

Defense Weekly, 9/9/98

--Primer on the Proposed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ACSA) and US Military Access,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Why the Senate Should Reject the VFA (A briefing paper submitted to the Philippine Senate on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February 1999

--Security of Pacific Island Nations: Militarisation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risis, Nic Maclellan (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er, Suva, Fiji)

--Women and War, Jeane Vickers, Zed Books, 1993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Mailing Address:

31 Dao Street, Mapayapa Village III
Capitol Hills, Quezon City, Philippines

Telephone/FAX: (63-2) 931-1153

E-mail: no-nukes-asia@netasia.net

nfpc@edsamail.com.ph

Women's Solidarity for Peace

Corazon Valdez Fabros

(Secretary General,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On behalf of the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I bring you warm greetings of peace and solidarity from the nuclear free, bases free Philippines. I wish to thank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ASEM III People's Forum and Women Making Peace the invitation and for making it possible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worthy gathering of peace forces from all over the world. It is with great joy and gratitude that I come to Korea this year when initiatives and serious work is being done to finally realize a one Korea that we've all hoped and dreamed about. I would like to give my respect. I want to say "Kamsa Hamnida" out of respect for you, your people and your land.

I represent the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a campaign-oriented coalition of national and sectoral organizations of youth and students, peasants, women, health workers, church people, labor unions, professionals, urban po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ights advocates nationwide,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ovements. Established in 1981, the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spearheaded the successful campaigns agains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irst and only nuclear power plant in the Philippines. Likewise, it lobbied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nuclear weapons-free provision in the Philippine Constitution. In 1991, the Coalition led the national campaign for rejection of a new Philippine-US military bases agreement.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bases and troops in 1992, it pursued the campaign for the clean-up of the former US bases facilitating the organization of the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It is an honor to be here and also a responsibility I feel privileged to undertake. It is a challenge for me to write out this speech as I

wondered what I could tell a special group of women peace workers about Women's Solidarity for Peace that they have not heard or read about. I always thought and considered solidarity in terms of being able to share one's dreams, strategies and experiences. It is sharing our stories not abstract appeals that best inspire people to action. "To be touched by another's pain, suffering and courage is to make it our own."

Allow me to speak a little bit about the Philippines. When talking about our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what stands out is the fact that our colonizers (whether it be Spain, Japan or the United States) have occupied our lands and subjugated our people through the power of the gun. And with it comes the abuse and rape of our women and children. The use of military and violence have been a common denominator, whether we are looking at centuries of history or contemporary times.

It is part of our sense of pride to realize that we, Filipinos, were the first in Asia to declare independence as a newly-born nation and to unshackle the chains of European colonialism. Last year, 1999, marks 100 years of US intervention in Asian affairs. The era began on 4 February 1899 when US troops trampled on Philippine soil, undermined the freedom and sovereignty that our forefathers won after 300 years of Spanish colonization, waged a war of conquest and colonized the Philippines so as to gain a market and military stronghold in Asia. The bloody US conquest in 1899 of the Philippines caused the death of more than 650,000 Filipinos or 20% of our population then, mostly civilians. Historians have called that era of the Philippine-American War as, "*America's First Vietnam in Asia.*"

A Continuing Struggle for a Nuclear Free, Bases Free Philippines

In 1991, the Philippines ended US military presence in the Philippines through the historic rejection of the RP- US Military Bases Agreement. To a significant degree, the rejection was built on many

years of relentless struggles of a committed anti-nuclear and anti-bases movement in our country. In November 1992, we witnessed the withdrawal of the last US military base personnel from the Philippines. A dream come true for many of us who has been in the struggle for a good part of our lives. Personally, it was a cherished dream that is dedicated for my children and my children's children but one that I least expected would happen in my lifetime. I feel grateful to be around when it did happen but I also feel sad and angry when I remember many friends and comrades who were tortured, even murdered, detained and deprived of their liberties, women who were raped and abused, children who lost their parents, mothers who lost their sons and daughters as a consequence of the struggle.

The US Bases in the Philippines had long gone, but the politics of dependency between the Philippines and US governments continue. Militarism has taken new shapes, and the various trade agreements which globalizes economies and societies, is another form of conquest. As the United States pursued a new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with the Philippines, and a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deny any responsibility in cleaning up the mess they left behind, the anti-nuclear, anti-bases movement have taken on new forms of campaigning and have continued to engage the government in its relentless efforts to never again allow any return of military defense arrangement with the US.

The RP-US Visiting Forces Agreement of 1999

It is unfortunate that as we commemorate our independence, we also witness the return of US forces and military exercises in Philippine soil after the Philippine Senate's ratification of the RP-US Visiting Forces Agreement (VFA). This development restores the role that the Philippines played when we had the US bases in our country -- as an accomplice in intervention and aggression by US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Middle East, or any part of the world.

Like previous military treaties between the Philippine government and the US, the VFA and its onerous provisions show utter disrespect for Philippine territorial integrity, environment and dignity of the Filipino people. The VFA reintroduces US military troops in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exemption from judicial jurisdiction over crimes that may be committed by US troops and personnel within Philippine territory among others. The US has considered 22 commercial ports as military access points, opening the whole country to unprecedented US military presence.

More ominously, the VFA does not require the US military to declare whether or not nuclear weapons are on board vessels entering Philippine territory. This allows the transport of nuclear weapons into the country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explosion. It also opens the country to any possible external threat from the enemies of the US.

Other "activities" granted to US forces by the VFA have grave implications for both our public and private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has developed a global surveillance system - a system it calls ECHELLON - which is a powerful electronic net that intercepts and monitors all phone, fax, e-mail and modem signals. The European Parliament in a 1998 report entitled *AN APPRAISAL OF TECHNOLOGIES OF POLITICAL CONTROL* has listed serious concerns and has recommended an intensive investigation of US-NSA operations which utilized military communications facilities in other host countries. The NSA ECHELLON system provides awesome potential for abuse against civilian targets and governments worldwide, even against allies of the US.

In the VFA, the definition of US military personnel includes not only US soldiers and sailors but also "*civilian personnel who are employed by the US armed forces and who are accompanying the US armed forces*". These US "*civilians*" include technicians and specialists of the secretive US-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during the time of US bases operated

spy communication facilities at Clark, Subic and Camp John Hay. All private citizens communications are intercepted and monitored by the ECHELL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eavesdropping networks in the world. According to Nicky Hagers book about international spy network, SECRET POWER (N. Hager 1996), the US has not only been using its NSA ECHELLON SYSTEM to collec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telligence not only against its enemies. According to Hager, *"there is extensive interception of the ASEAN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 . . where ASEAN meetings receive special attention with both public and private communications of these countries being intercepted to reveal the topics discussed, positions being taken and policy being considered"*.

US Security and Defense Policy

According to the 1997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U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policy implemented by 100,000 US troops deployed in the region, is now intertwin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such as *"protection of the sea lanes of trade"* and *"ensuring unhindered access to key markets, energy supplies and strategic resources."* Pentagon literature now treats operational jurisdiction of the Pacific Command as *"highways of trade which are vital to US national security."*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territorial claims in the Spratlys in the South China Sea by five Asian countries can be seen as a potential flashpoint in the region. Incidentally, it is this tension perceived as created by China's aggressive territorial claim in the Spratlys, that has provided justification to restore military presence in the Philippines through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In a recent Washington Post article by Thomas E. Ricks, 5/28/2000 (*US military Focus seems to undergo a continental shift Strategists see Asia as the potential hotbed of Conflict*) - - . . . the pentagon appears to be looking at Asia as the most likely arena for future military conflict, or at least competition. This apparent orientation is reflected in many small but significant changes: more attack submarines assigned to the Pacific, more

war games and strategic studies centered on Asia, more diplomacy aimed at reconfiguring the US military presence.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world economy has shifted to Asia, said James Bodner, the principal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and US interests flow with that. Two US major long-running, military-diplomatic efforts reflects the new attention to Asia. First - renegotiating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and second - the negotiation of the US military re-entry in Southeast Asia,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 Vietnam War and almost ten years after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its bases in the Philippines. After settling on a Visiting Forces Agreement last year,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have conducted two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The revamped U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Philippines, one general said, may be a model for the region. Rather than build Little America bases with bowling alleys and Burger Kings that are off-limits to the locals, US forces will conduct frequent joint exercises to train Americans and Filipinos to operate together in everything from disaster relief to full-scale combat.

War Games and Joint Military Exercises

The U.S. military units regularly involved in the war games in the Philippines are largely the Special Forces units consolidated globally in Exercises known officially as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JCET), now an indispensable part of post -Cold war US interventionist foreign policy to back up US economic globalization policies. Under the guise of training US troops in Joint exercises, these special forces units are involved in collecting strategic information o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everything from topography, backgrounds of foreign leaders, evaluation of readiness of foreign troops, potential landing sites, and the like. While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ould naturally always maintain that they do not participate in actual military operations of host countries, US forces during war games actually fulfill training of local counter-insurgency units, carry out the detection, monitoring and intelligence-gathering

missions, most of them secret, to back up counter-insurgency missions.

The war games are an indispensable military component of the corporate globalization of the Philippines to assure the unhampered operations of foreign corporate plantations in Mindanao. It is also meant to familiarize foreign militaries how to use US weapons and military hardware. Joint training is important in creating a climate of support for US foreign policy goals and in establishing personal contact and influence between US military and foreign defense officers. US military exercises are part and parcel of the Pentagon's expansion of US military might worldwide and to maximize capabilities for intervention.

Toxic and Hazardous Waste Contamination and the problem of clean up

We are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at will again be inflicted by US military exercises and port calls as they have done so in the former bases. After nearly a century of military presence in the Philippines, the US military left behind sites contaminated with toxic and hazardous wastes. There is a huge body of evidence of contamination at the former military bases. It is what experts say would warrant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clean-up if it was in the US.

The continuing tragedy of poisoning and contamination in the former bases is a glaring proof of the irresponsible and reckless way in which the US conducted itself at the height of its military presence and dominance in the Philippines. The heartbreaking stories of babies dying and people suffering within and around the former bases represent an enduring legacy of toxic transgressions whose foremost and vulnerable victims are women and children. The damage is not only physical but it is also profound. This chemical trespass stabs into the future when it robs our children of their potential to achieve and to live healthy and meaningful lives. Our children are all that are as a people. They are all that we have. No one, not even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has the right to steal our children's future. We maintain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made accountable for the toxic mess that it left behind in the Philippines.

The necessity of continuing and sustained struggles and advocacy and building linkages across the region and elsewhere are important steps to ensure that the US bases (mechanisms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once and for all leave our territories, but more than that, to ensure a global world where children are protected, women's bodies are respected, lives of communities sustained and above all the sovereignty and dignity of nations respected and upheld. I stand before you today in solidarity with your struggles. In the Philippines, we always believed that our campaign against foreign domination and foreign military presence will never end until we witness the dismantling of the last military facility and the departure of the last military personnel from Asia and the Pacific. US bases out of Okinawa, Japan, Korea, Hawaii, Guam, Puerto Rico!

The Need for Dynamic Women Leadership in Peace and Security Agenda

Women and children are the first and foremost victims in situations of war and conflict. That is why many women'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issues of war and peace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to development and to economic and social justice. Over the years, the dedicated activities of the ever growing women's movement for peace have made notable contributions to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s, but a great deal remains to be done and it is important that women continue to take on a leading role in this area. Women have an important leadership role in dismantling the structures and ideology that uphold military dominance, gender oppression and exploitation. Women and young children are oftentimes targeted as objects and victims. It is not surprising that some of the strongest criticisms of the military, of military bases, and of militarism come from women and women's movements. The history of women's struggles and peace-building everywhere, especially of solidarities transcending traditional borders and

boundaries amidst situations of war and militarization, offer inspiration and lessons for the way to peace and to building alternative systems and structures of people's security.

Solidarity for People's Security

The peoples of Asia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finding solutions to immediate and longstanding threats to peace and show the way towards building our region where genuine security is guaranteed and protected. Freedom from fear and hunger, genuine democratization, gender justice, economic and social justice, equality and mutual trust and respect amongst peoples,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es, and the genuine care for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the real bases for such people's security.

In acting together in solidarity with one another, we must:

--Come to terms with our own histories or herstories, with the complicity of our societies, and sometimes of our own selves, in the toleration of violence or violent structures, relations and values.

--Transcend through frank dialogue the hatreds and suspicions of the past that allow US military to pose as the "preserver of the peace" and prevent us from creating the regional structures to solve our problems among ourselves.

--Address the situation of conflicts in our societies and work towards the building of mutual trust and respect amongst our communities, nations and peoples. One community's security should never be another community's insecurity.

--Work towards a peaceful and de-militarized and nuclear-free Asia and the Pacific which promotes alternative ways of people to people and state-to-state cooperation and which is based on multilateral systems of

collective security founded on a new paradigm of people's security.

It is our hope that this gathering will continue to inspire us always, nurture our commitment to the struggle for peace and security. Let me close with our warm greetings of "MABUHAY!" and MAKIBAKA!

References:

--"Towards People's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Declaration of the Okinawa International Forum on People's Security, June 2000, Okinawa, Japan

-- Indigenous Affairs, No. 1 January, February, March, 2000 issu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iwgia.org

-- NFPC January 25 and June, 2000 press statements on Balikatan 2000 and Exercises Carat

--Washington Post, May 28, 2000

--Philippine Senate Committee Report 237

--Keeping the Philippines Nuclear Free (Centennial Lectures on Natural Security), Prof. Roland Simbulan

-- President Clinton, A Corporate Offensive and Okinawan Bases, D. Bone Schirmer/Boston Okinawa Network, April 2000

--Inheritors of the Earth,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 2000, basecln@skynet.net

--Prostitution and the Bases: A Continuing Saga of Exploitation (Aida F. Santos/Cecille Hoffman/Alma Bulawan)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PCDS)

Resource Office: 3780 Lake Road, Denman Island,

British Columbia, Canada V0R 1T0

E-mail: >pcdsres@island.net

--PCDS Information Update #50/51 April/July 1999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CDI)

*website - ><http://www.cdi.org/issues/Asiamil.html>

--US Military Presence and Alliances in Asia-Pacific: Muscle and Enforcer for Multilateral Imperialism, *Prof. Roland Simbulan* (Address before World Peace Council, Hanoi Vietnam, March 1999)

--Secret Power, *Nicky Hager*, 1996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Update and campaign materials, basecln@skyinet.net

--Budget Cuts Push USA into Overseas Market, *Bryan Bender*, *Jane's Defense Weekly*, 9/9/98

--Primer on the Proposed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ACSA) and US Military Access,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Why the Senate Should Reject the VFA (A briefing paper submitted to the Philippine Senate on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February 1999

--Security of Pacific Island Nations: Militarisation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risis, *Nic Maclellan* (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er, Suva, Fiji)

--Women and War, *Jeane Vickers*, Zed Books, 1993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It successfully led the opposition against the operation of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as well as other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in the Philippines. It also served as the campaign center for the rejection of a new RP-US Military Bases Agreement & the removal of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Mailing Address:

31 Dao Street, Mapayapa Village III

Capitol Hills, Quezon City, Philippines

Telephone/FAX: (63-2) 931-1153

E-mail: no-nukes-asia@netasia.net nfpc@edsamail.com.ph

평화 유지에 있어 여성의 역할

조 사오궈아 (전중국부녀동맹, 국제연락부 부대표)

우선 저에게 아시아와 유럽 각국에서 온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또 이곳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준비위원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관련된 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이슈는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 가장 뜨거운 화제중의 하나입니다. 21세기에 막 들어서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는 이때,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유례없이 파괴적인 전쟁들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여성들)의 끊임없는 노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극화와 경제적 세계화, 각 국가와 민족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등은 현 시대의 조류인 평화, 안정,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중은 평화를 좀더 긴밀하게 인식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종적, 종교적, 영토적 소요와 다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무장 분쟁과 국지전은 전 사회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 4차 세계 여성 회의의 주요 테마 중 하나가 평화였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이 반드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과 진보를 제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삶은 영위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목적인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 없이는 여성의 지위의 향상이나 여성 권리의 향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각국의 민중과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한 나라 또는 정부, 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

니다. 저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리, 지위, 역할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종교, 문화, 역사, 경제적 지위,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여성들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여성으로써, 어머니로써, 그들은 평화 유지의 책임을 좀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받아들여 수행해 왔습니다. 새 생명을 기르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알며, 죄 없는 생명들을 잃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 특히 현대사에서 여성이 전쟁과 진공의 시기에 가장 많이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의 여성들은 온갖 역경을 겪어야 했고 평화를 위해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평화를 좀더 소중히 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수호자이며 평화 유지에 있어 주요 원동력입니다.

실례들은 현재 여성이 점점 더 인류의 평화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사결정과 분쟁예방 및 해결 그리고 다른 모든 평화 주도권에서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평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성들은 미군기지 반대 투쟁과 반전투쟁, 핵무기 완전제거를 위해 애써 옴으로써 평화유지에 커다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편 중국 여성들은 본도의 통일, 세계평화 수호, 세계모니와 힘의 정치, 군비 경쟁에 반대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확실히 여성들은 현재도, 앞으로도 전세계와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수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비록 여성들이 평화유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의사결정 지위에서는 제대로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평등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더 힘을 키우고 모든 레벨의 의사결정에 있어 적합하게 대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평화유지에 있어 전면적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모든 나라와 국민들 사이의 정의와 관용을 고양하기 위한 평화 문화를 널리 펼치기 위한 교육은 평화유지에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에는 분쟁해결, 중재, 편견 감소, 다양성 존중의 요소들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과 학교에서 평화 교육자로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와 유럽의 여성과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상호간의 교류와 상호존중, 상호관용을 도모하고,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유지 세력의 힘을 확장하십시오.

21세기는 평화로운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 퇴보가 과거지사가 되고, 평화와 번영, 발전이 새 세기의 테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되고, 민중과 여성들이 상호 존중과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Women's Role in Maintaining Peace

Zou Xiaoqiao (All-China Women's Feder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thanks to the organizer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address here and to meet so many friends from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and be pleased to share with you my view relating to peace.

The issue of peace is one of the hot topics in today's world.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hen looking back at the entire 20th century, we can see the unprecedented devastating wars the world had experienced and unremitting efforts made by people and women of all countries striving for and maintaining peace in this region and the world. Today, although gre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is world, the multi-polarization, economic globalization and increase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peoples and countries are working to strive for peace, stability, development and progress which is the tide of the day. We can say that people today are more aware of peace and are powerful enough to oppose war and maintain peace. However, to our regret, arm conflicts and local wars break out continuously due to ethnic, religions or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vention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do harm to the entire society and have directly infringed on women's rights and freedom and also become a great impediment for women's development. Therefore, one of the themes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in 1995 is peac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states that women could achieve development only in a peaceful environment and women could and should play a role in maintaining peace.

Maintaining peace, promoting development and progress, enjoying better life is a common goal of entire nations of the world. Without world peace and stability, there will be no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and enjoyment of women's rights. Therefore,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Europe and in the world, eliminating all the factors that might lead to war still are the important tasks of people and women of various countries. The fact has proved that maintaining peace is not only the matter of a country, government and man, but is very close related to women. I hold that the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women's rights, status and role in the field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Loving peace and maintaining common interests of mankind is of the same vies of women from various countries despite of their different background of religion, culture, history and economic status and different regions. Women in Asia and Europe like women in other countries love peace very much. As women and mother, they have been taking up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peace more consciously and bravely. Because it is women who breed new lives, they know the value of lives best and cannot bear to see the single loss of innocent lives. It is also because women in history, especially in modern history suffered most in a war and turbulence, particularly women in Asia who had gone through all kinds of hardships and suffers and paid a great price to peace. That is why women even more cherish peace and know its value. They are the protectors of peace and an important force in keeping peace. Practices show that women are increasingly establishing themselves as central actors in a variety of capacities in the movement of humanity for peace. Their ful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all other peace initiatives is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lasting peace. For instances, Japanese women have been long time making great efforts in striving for peace, fighting against foreign military bases, opposing war and struggling for complete destr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wom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working hard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Korean peninsula issue, while the Chinese women are also making their contributions to the cause of unifying the motherland, safeguarding world peace, against hegemonism, power politics and armament race. Women, no doubt, are and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ir own regions but also in the world as a whole.

Her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following:

--Although women have begu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eace-keeping activities, they are still underrepresented in decision-making position in general. We believe if women are to play an equal part in securing and maintaining peace, they must be empowered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represented adequately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By doing so, women can give full play in keeping peace.

--Education to foster a culture of peace that upholds justice and tolerance for all nations and peoples is essential to attaining lasting peace and should be begun at an early age. It should include elements of conflict resolution, mediation, reduction of prejudice and respect for diversity. Women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as peace educators both in their families and in their society.

--Strengthen the 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women and women's organizations in Asia and Europe, promote mutual exchanges, mutual respect, mutual tolerant and sincere get along with each other, so as to enlarge the peace-keeping force in Asia and Europe.

The 21st century should be a peaceful one. At this moment, we look forward to the bright future. We hope that war, poverty and backwardness become the past, and peace, prosperity and advancement is the theme of the new century. We believe our dream of peace can come true and people will lead a better life, and that people and women could work together to achieve mutual respect,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